2024. 4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 동향 I 제42호

# NABO 경제 동향

##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 | 반도체 기술: 위기와 기회

경제 현안 | 우리나라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BO 경제 동향」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 동향」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bo Economic Trends

# 경제동향

2024년 4월호 통권 제42호

## Contents


Ⅰ 지출

1. 소비 08
2. 투자 10
3. 대외거래 15
4. 소비자물가 18

Ⅱ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2
2. 고용 33
3. 인구 37

Ⅲ 금융·자산·재정

1. 국내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3
3. 부동산 49
4. 재정 51

Ⅳ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56
2. 중국 59
3. 유로지역 61
4. 일본 63
5. 글로벌 금융시장 65

Ⅴ 기술경제 동향

반도체 기술: 위기와 기회 70

Ⅵ 경제 현안

우리나라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8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경제동향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은 지속

###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부진이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0 → (2월)-3.1

### 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2월)2.3 → ('24.1월)-5.9 → (2월)10.3

### 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감소 전환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3.6 → ('24.1월)13.8 → (2월)-1.9

### 3월 「무역수지」는 42.8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5.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한 522.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감소

### 3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3.1 → (3월)3.1

###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0.4 → ('24.1월)7.4 → (2월)2.0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6.8 → ('24.1월)13.7 → (2월)5.1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1.2 → ('24.1월)4.5 → (2월)1.2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0.4 → ('24.1월)0.4 → (2월)1.3

### 3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한 2,839.6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0%를 기록

### 3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는 하락, 「원/달러 환율」은 상승

- 3월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으로 하락
  - 국고채(3년) 금리(%): (2024.1월말)3.26 → (2월말)3.39 → (3월말)3.32
- 3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2024.1월말)1,331 → (2월말)1,334 → (3월말)1,347

※ 4월 1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83원으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파르게 상승

##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 | 2022 | 2023 | | | | | | 2024 | | |
|---|---|---|---|---|---|---|---|---|---|---|
| | 연간 | 연간 | 1Q | 2Q | 3Q | 4Q | 12월 | 1월 | 2월 | 3월 |
| 전산업생산 | 4.6 | 1.0 | 1.6 | -0.3 | 1.3 | 1.3 | 0.4 | 7.4 | 2.0 | - |
| 제조업생산 | 0.9 | -2.6 | -8.7 | -6.2 | -0.2 | 5.1 | 6.8 | 13.7 | 5.1 | - |
| 서비스업생산 | 7.0 | 3.2 | 6.3 | 2.6 | 2.3 | 1.8 | 1.2 | 4.5 | 1.2 | - |
| 소매판매액 | -0.3 | -1.5 | -0.8<br>(0.6) | -0.7<br>(-0.5) | -2.7<br>(-1.9) | -1.9<br>(0.4) | -0.7<br>(0.5) | -3.3<br>(1.0) | 0.9<br>(-3.1) | - |
| 설비투자지수 | 3.3 | -5.4 | -1.0<br>(-8.0) | -0.9<br>(1.0) | -10.7<br>(-3.1) | -8.5<br>(3.1) | -5.9<br>(2.3) | 3.8<br>(-5.9) | -0.3<br>(10.3) | - |
| 건설기성액 | 2.8 | 7.3 | 11.5<br>(2.8) | 8.7<br>(1.1) | 10.1<br>(1.1) | 0.6<br>(-2.5) | -2.8<br>(-3.6) | 18.2<br>(13.8) | 0.5<br>(-1.9) | - |
| 수출(통관) | 6.1 | -7.5 | -12.8 | -12.0 | -9.7 | 5.7 | 5.0 | 18.2 | 4.9 | 3.1 |
| 수입(통관) | 18.9 | -12.1 | -2.2 | -13.2 | -21.6 | -10.7 | -10.9 | -7.9 | -13.2 | -12.3 |
| 경상수지(억달러) | 258.3 | 354.9 | -59.6 | 71.1 | 156.0 | 187.4 | 74.1 | 30.5 | 68.6 | - |
| 소비자물가 | 5.1 | 3.6 | 4.6 | 3.3 | 3.1 | 3.4 | 3.2 | 2.8 | 3.1 | 3.1 |
| 취업자수 증감(천명) | 816 | 327 | 397 | 346 | 263 | 303 | 285 | 380 | 329 | 173 |
| 실업률 | 2.9 | 2.7 | 3.2 | 2.7 | 2.3 | 2.6 | 3.3 | 3.7 | 3.2 | 3.0 |
| 원/달러환율 | 1,292 | 1,305 | 1,304 | 1,313 | 1,345 | 1,289 | 1,289 | 1,331 | 1,334 | 1,347 |
| 국고채금리(3년) | 3.20 | 3.57 | 3.27 | 3.66 | 3.88 | 3.15 | 3.15 | 3.26 | 3.39 | 3.32 |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3. 4월 1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83원으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파르게 상승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지출

###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부진을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0 → (2월)-3.1
- 내구재(전월대비, %): ('23.12월)-0.7 → ('24.1월)-0.8 → (2월)-3.2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12월)1.9 → ('24.1월)-1.1 → (2월)2.4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2월)0.7 → ('24.1월)2.4 → (2월)-4.8

### 2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2월)2.3 → ('24.1월)-5.9 → (2월)10.3

### 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감소 전환하여 1.9% 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3.6 → ('24.1월)13.8 → (2월)-1.9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5.0 → ('24.1월)15.0 → (2월)-1.8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0.6 → ('24.1월)10.4 → (2월)-2.2

### 3월 「무역수지」는 42.8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18.2 → (2월)4.9 → (3월)3.1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월)-7.9 → (2월)-13.2 → (3월)-12.3
- 무역수지(억달러): ('24.1월)4.0 → (2월)42.9 → (3월)42.8

### 3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3.1 → (3월)3.1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3.1 → (2월)3.9 → (3월)4.0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6 → (2월)2.5 → (3월)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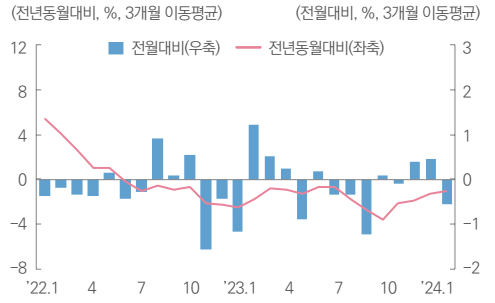
# 1 소비

##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부진이 지속

■ **소매판매는 내구재의 둔화가 지속된 가운데 명절효과로 비내구재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3.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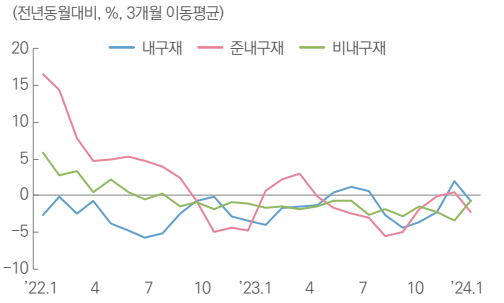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0 → (2월)-3.1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7 → ('24.1월)2.9 → (2월)-3.6

| 그림 1 |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 | 내구연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가전제품,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기저효과로 큰 폭 감소하여 전월대비 3.2%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3.12월)-0.7 → ('24.1월)-0.8 → (2월)-3.2
- 승용차(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6.2 → (2월)3.5
- 가전제품(전월대비, %): ('23.12월)-1.6 → ('24.1월)6.1 → (2월)-6.4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3.12월)-6.6 → ('24.1월)28.9 → (2월)-15.4

■ **준내구재는 의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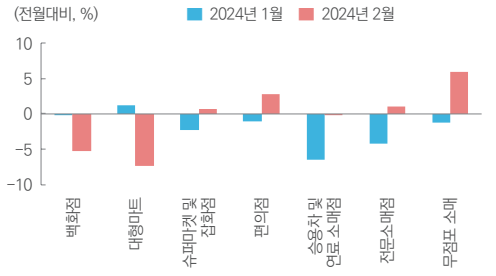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12월)1.9 → ('24.1월)-1.1 → (2월)2.4
- 의복(전월대비, %): ('23.12월)2.7 → ('24.1월)-0.6 → (2월)3.6
-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 %): ('23.12월)-0.6 → ('24.1월)0.0 → (2월)-4.4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4.8% 감소**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12월)0.7 → ('24.1월)2.4 → (2월)-4.8
- 음식료품(전월대비, %): ('23.12월)-0.2 → ('24.1월)1.5 → (2월)-5.4
- 화장품(전월대비, %): ('23.12월)9.6 → ('24.1월)7.7 → (2월)-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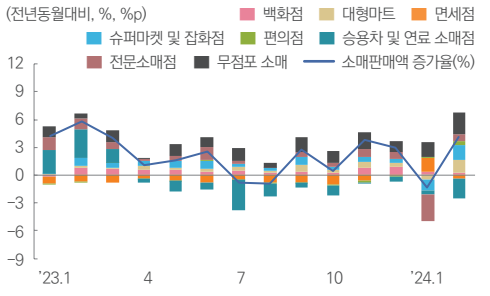
■ **소매업태별로는 설 연휴 영업일수 감소로 백화점(-5.2%), 대형마트(-7.4%)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무점포 소매(5.8%), 편의점(2.8%), 슈퍼마켓 및 잡화점(0.6%) 등에서 전월대비 증가**

**| 그림 3 | 업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업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기여도**




주: 소매판매액증가율은 경상금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고 각 업태별은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p 하락한 100.7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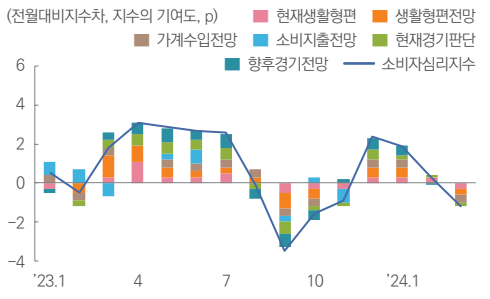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현재생활형편(89, -1p), 생활형편전망(93, -1p), 가계수입전망(99, -1p)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2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 ('24.1월)101.6 → (2월)101.9 → (3월)100.7

**| 그림 5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그림 6 |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지수차(p)이고 각 구성 항목은 지수의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2 투자

## 가. 설비투자

### 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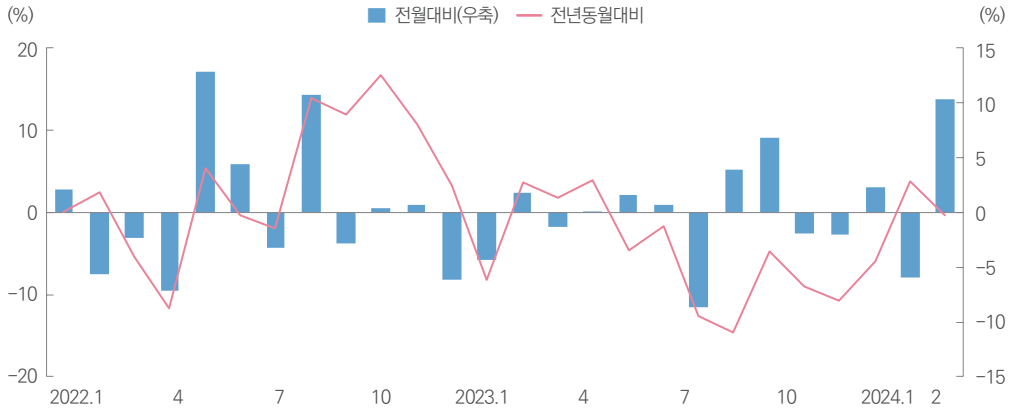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23.8%)와 기계류(6.0%)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10.3%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2월)2.3 → ('24.1월)-5.9 → (2월)10.3
- 기계류(전월대비, %): ('23.12월)5.0 → ('24.1월)-3.5 → (2월)6.0
- 운송장비(전월대비, %): ('23.12월)-5.1 → ('24.1월)-12.8 → (2월)23.8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0.7%)에서는 늘어났으나 운송장비(-3.1%)에서 줄어들며 0.3%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3.12월)-5.9 → ('24.1월)3.8 → (2월)-0.3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3.12월)-7.1 → ('24.1월)7.4 → (2월)0.7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3.12월)-2.2 → ('24.1월)-7.3 → (2월)-3.1

| 그림 7 |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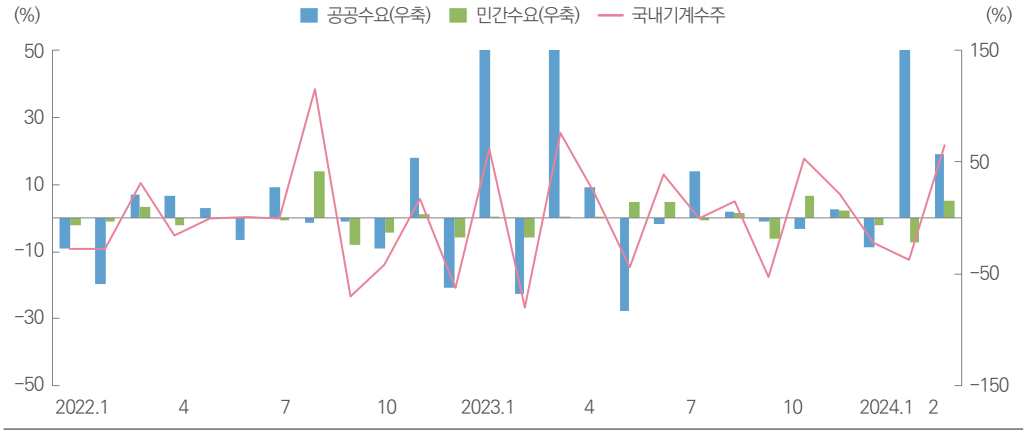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는 증가,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15.2%)과 공공부문(56.9%)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21.7% 증가**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3.12월)-7.3 → ('24.1월)-12.4 → (2월)21.7
• 공공부문(전월대비, %): ('23.12월)-25.9 → ('24.1월)154.5 → (2월)56.9
• 민간부문(전월대비, %): ('23.12월)-6.0 → ('24.1월)-21.9 → (2월)15.2

| 그림 8 | 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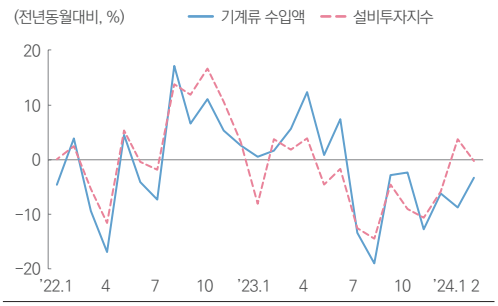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3.12월)0.8 → ('24.1월)-1.5 → (2월)4.4

■ **기계류 수입액은 자동차 부품(-17.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0.4%)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3.12월)-6.3 → ('24.1월)-8.8 → (2월)-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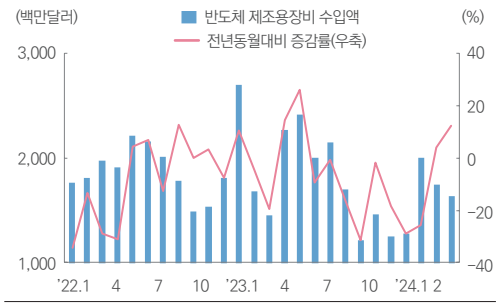
| 그림 9 |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기계류 수입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무역협회

# 나. 건설투자

## 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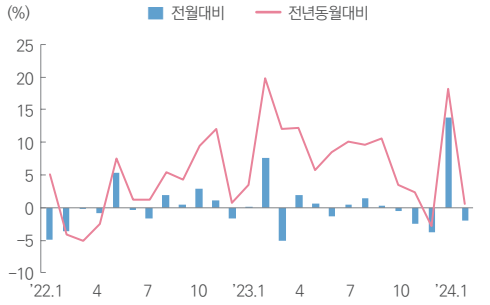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과 토목(-2.2%)의 실적 모두 감소하여 전월대비 1.9%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3.6 → ('24.1월)13.8 → (2월)-1.9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5.0 → ('24.1월)15.0 → (2월)-1.8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0.6 → ('24.1월)10.4 → (2월)-2.2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소폭의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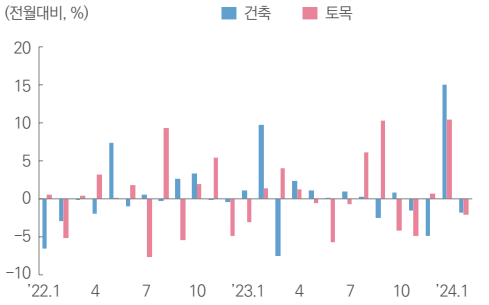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3.12월)-2.8 → ('24.1월)18.2 → (2월)0.5

| 그림 10 |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1 |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2월 「건설기성(경상)[1]」은 토목부문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건축부문의 둔화는 지속

■ **건설기성(경상)은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0.5 → ('24.1월)20.4 → (2월)2.6

■ **건축부문(경상)은 비주거용 건축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2.1 → ('24.1월)19.3 → (2월)0.1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5.6 → ('24.1월)15.4 → (2월)-0.7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3.3 → ('24.1월)25.2 → (2월)1.4

1)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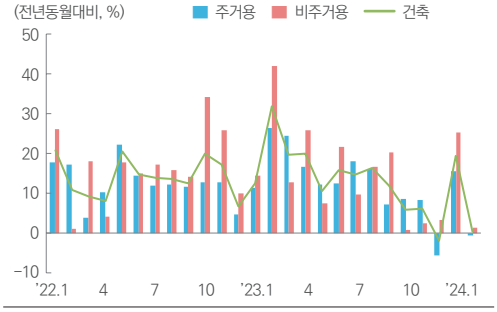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전기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목 공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2.3%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3.12월)2.9 → ('24.1월)24.5 → (2월)12.3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3.12월)13.6 → ('24.1월)33.0 → (2월)20.3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23.12월)-57.9 → ('24.1월)-32.0 → (2월)-15.0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23.12월)10.0 → ('24.1월)27.3 → (2월)8.9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민간기관은 증가하였으나 공공기관은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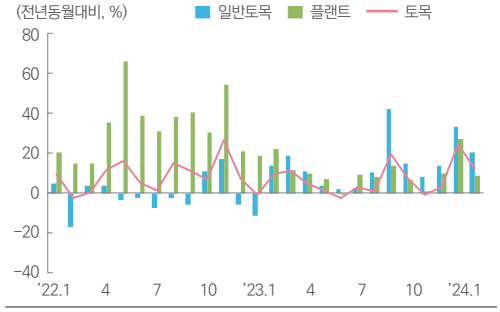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1.6 → ('24.1월)10.3 → (2월)-4.2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0.5 → ('24.1월)22.4 → (2월)3.8

| 그림 12 |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3 |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2월 「건설수주(경상)」는 건축부문의 둔화가 지속되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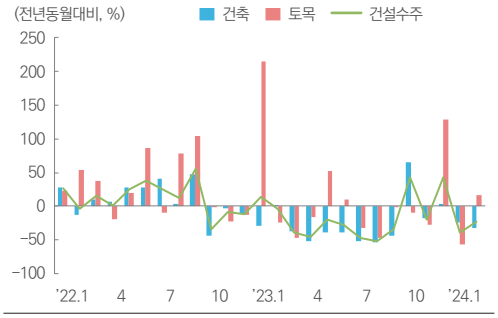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4.1% 감소**

- 건축수주는 주택(-10.6%)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공장 및 창고(-45.8%)의 수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3.1% 감소
- 토목수주는 철도 및 궤도(343.8%), 발전 및 통신(161.0%)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2% 증가
- 건설수주(경상, 전년동월대비, %): ('23.12월)42.7 → ('24.1월)-39.6 → (2월)-24.1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 수주는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 수주는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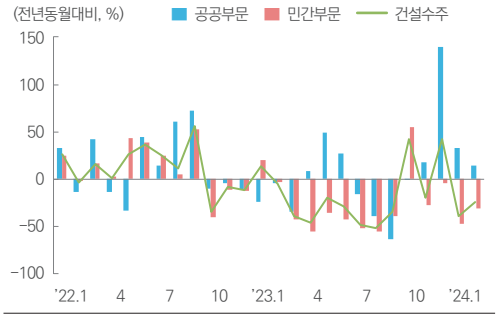
- 공공부문 수주가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한 한편, 민간부문 수주는 30.7% 감소

| 그림 14 |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5 |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3 대외거래

##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 3월 「무역수지」는 42.8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5.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18.2 → (2월)4.9 → (3월)3.1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4.1월)22.8 → (2월)25.6 → (3월)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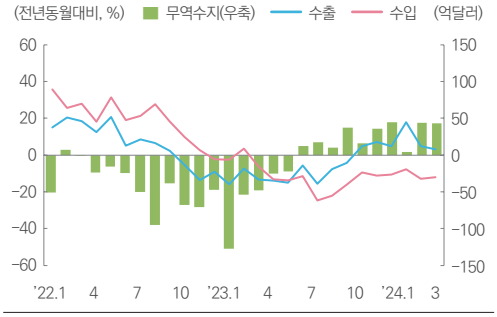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한 522.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월)-7.9 → (2월)-13.2 → (3월)-12.3
- 일평균수입액(억달러): ('24.1월)22.6 → (2월)23.5 → (3월)23.2

■ **무역수지는 42.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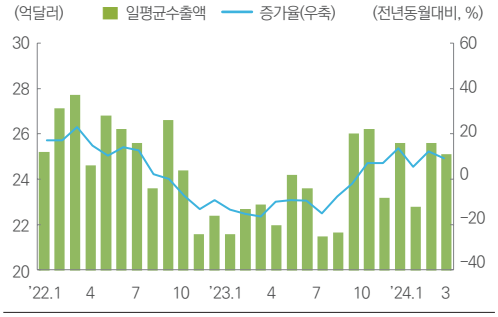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4.1월)4.0 → (2월)42.9 → (3월)42.8

| 그림 16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7 | 일평균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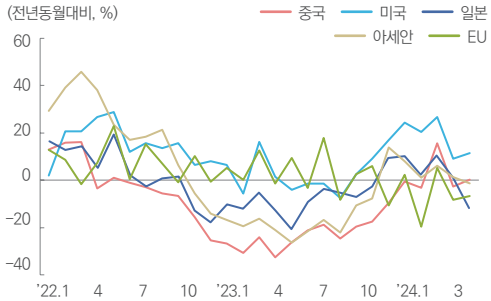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

■ **대미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중 수출도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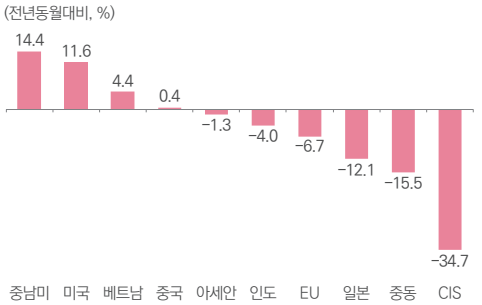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16.1 → (2월)-2.4 → (3월)0.4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27.1 → (2월)9.1 → (3월)11.6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10.8 → (2월)1.0 → (3월)-12.1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6.0 → (2월)1.4 → (3월)-1.3
- 대EU(27)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5.2 → (2월)-8.4 → (3월)-6.7
- 대중동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13.8 → (2월)-13.3 → (3월)-15.5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28.3 → (2월)25.0 → (3월)14.4
- 대베트남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월)11.2 → (2월)4.9 → (3월)4.4

**| 그림 18 |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그림 19 | 3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 나. 경상수지

### 2월 「경상수지」는 68.6억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경상수지는 68.6억달러로 전년동월 -13.3억달러보다 81.9억달러 증가**

- 경상수지(억달러): ('23.12월)74.1 → ('24.1월)30.5 → (2월)68.6

■ **상품수지는 66.1억달러로 전년동월 -12.5억달러보다 78.6억달러 증가**

- 상품수지(억달러): ('23.12월)80.4 → ('24.1월)42.4 → (2월)66.1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3.12월)62.4 → ('24.1월)26.8 → (2월)51.8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3.12월)18.7 → ('24.1월)16.5 → (2월)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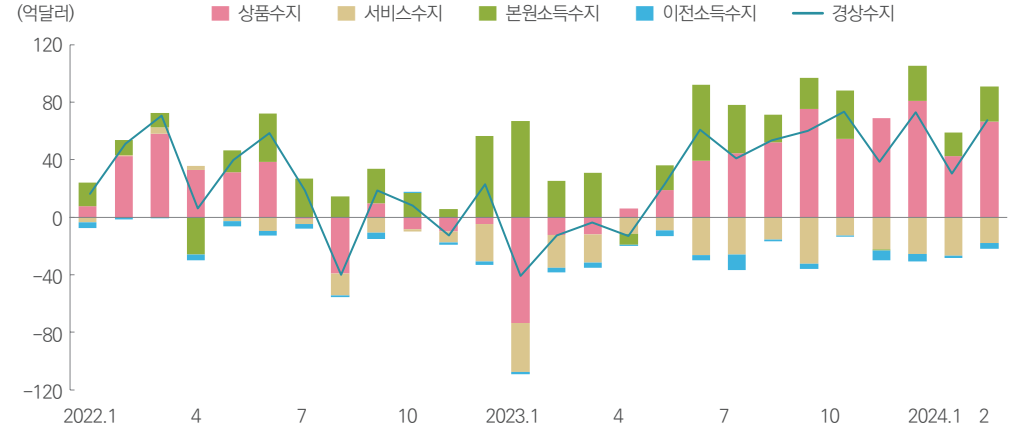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로 17.7억달러 적자 기록**

- 서비스수지(억달러): ('23.12월)-25.4 → ('24.1월)-26.6 → (2월)-17.7
- 운송수지(억달러): ('23.12월)-3.3 → ('24.1월)-1.9 → (2월)1.8
- 여행수지(억달러): ('23.12월)-13.4 → ('24.1월)-14.7 → (2월)-13.6

■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24.4억달러 흑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3.12월)24.6 → ('24.1월)16.2 → (2월)24.4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3.12월)26.4 → ('24.1월)17.5 → (2월)25.9

| 그림 20 |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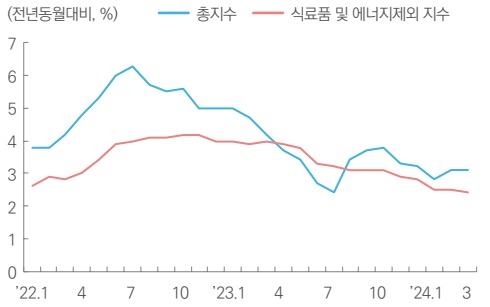
# 4 소비자물가

## 3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4.0%), 서비스(2.3%)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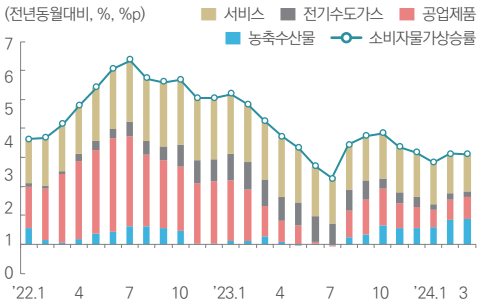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3.1 → (3월)3.1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3.1 → (2월)3.9 → (3월)4.0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6 → (2월)2.5 → (3월)2.3
- 근원물가상승률[2](전년동월대비, %): ('24.1월)2.5 → (2월)2.5 → (3월)2.4

| 그림 21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20.5%) 품목을 중심으로 11.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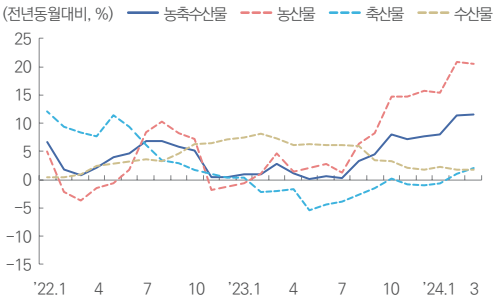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8.0 → (2월)11.4 → (3월)11.7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15.4 → (2월)20.9 → (3월)20.5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0.6 → (2월)1.1 → (3월)2.1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2 → (2월)1.8 → (3월)1.7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1.2%) 가격이 재상승하고 가공식품(1.4%)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2%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1.8 → (2월)2.1 → (3월)2.2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3.2 → (2월)1.9 → (3월)1.4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5.0 → (2월)-1.5 → (3월)1.2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4.1월)78.9 → (2월)81.2 → (3월)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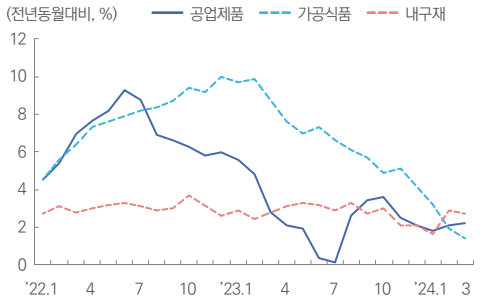
2)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그림 23 |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24 |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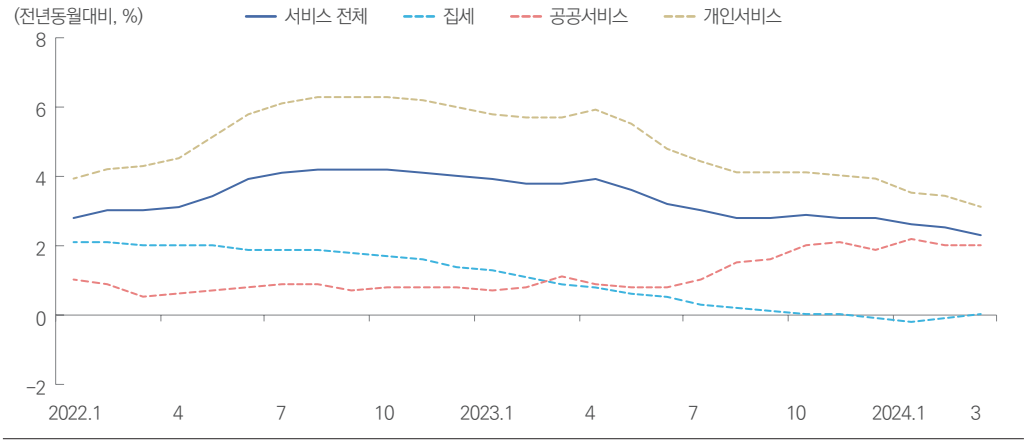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2.3%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6 → (2월)2.5 → (3월)2.3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0.2 → (2월)-0.1 → (3월)0.0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2 → (2월)2.0 → (3월)2.0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3.5 → (2월)3.4 → (3월)3.1

| 그림 25 |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Ⅱ

경제동향

# 생산·고용·인구

## 2월 「생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1.3%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0.4 → ('24.1월)7.4 → (2월)2.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0.4 → ('24.1월)0.4 → (2월)1.3

■ 「제조업 생산」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장치, 자동차, 일반기계, 화학, 철강 등은 감소, 반도체, 석유, 가전 등은 늘어 5.1%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6.8 → ('24.1월)13.7 → (2월)5.1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소,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늘어 1.2%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1.2 → ('24.1월)4.5 → (2월)1.2

## 3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11대 산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장치, 무선통신기기, 석유, 조선 등 6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對미수출이 역대 3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2월)8.7 → ('24.1월)21.9 → (2월)9.4 → (3월)8.3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12월)5.4 → ('24.1월)-5.8 → (2월)-4.4 → (3월)9.4

■ 품목별로는 조선(102.1%), 반도체(35.8%), 무선통신기기(5.5%), 석유(3.1%) 등은 증가, 일반기계(-10.0%), 철강(-7.8%), 자동차(-5.5%), 화학(-2.2%) 등은 감소

## 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 유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12월)-0.1 → ('24.1월)0.1 → (2월)0.2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12월)0.2 → ('24.1월)0.0 → (2월)0.1

## 3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한 2,839.6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0%를 기록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
-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둔화, 15~29세 및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세 심화

## 3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12만명 감소(-0.23%)

■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자연증가」는 1월 기준 51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1월 기준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

# 1 생산

##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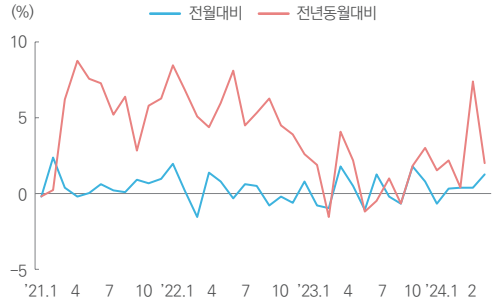
### 2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은 줄었으나 건설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늘며 2.0%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은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이 늘며 1.3%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0.4 → ('24.1월)7.4 → (2월)2.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0.4 → ('24.1월)0.4 → (2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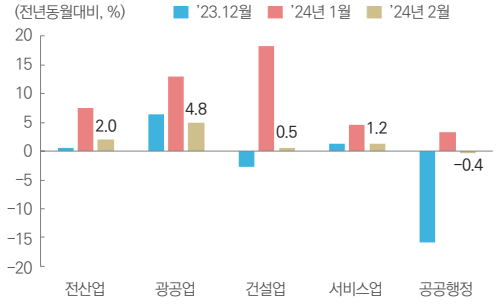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0.4%)의 생산은 감소, 광공업(4.8%), 서비스업(1.2%), 건설업(0.5%)은 증가, 전월대비로는 건설업(-1.9%)의 생산은 감소, 광공업(3.1%), 공공행정(1.4%), 서비스업(0.7%) 등은 증가**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 2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21.5%), 컴퓨터·주변장치(-14.7%), 섬유(-12.6%), 자동차(-11.9%), 일반기계(-8.6%), 화학(-6.1%), 철강(-4.2%)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65.3%), 석유(6.8%), 가전(0.8%) 등의 생산이 늘어 5.1%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6.8 → ('24.1월)13.7 → (2월)5.1

■ **전월대비: 조선(14.6%), 일반기계(10.3%), 반도체(4.8%), 컴퓨터·주변장치(2.4%), 석유(1.6%), 자동차(1.3%), 가전(1.4%)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10.2%), 철강(-1.4%), 화학(-0.5%) 등의 생산이 줄어 3.4%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5 → (2월)3.4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

| 산업별 | 2022 | 2023 | | | 2024 | | |
|---|---|---|---|---|---|---|---|
| | 12월 | 1월 | 2월 | 12월 | 1월* | 2월* | 전월대비 |
| 제조업(원지수) | 108.3 | 95.2 | 95.5 | 115.7 | 108.2 | 100.4 | 3.4 |
| 제조업 | -11.4 | -13.4 | -6.7 | 6.8 | 13.7 | 5.1 | |
| 반도체 | -26.0 | -33.5 | -38.0 | 47.1 | 44.7 | 65.3 | 4.8 |
| 자동차 | 10.9 | 10.5 | 27.0 | -0.4 | 13.3 | -11.9 | 1.3 |
| 화학 | -24.5 | -23.0 | -15.5 | 1.2 | 3.3 | -6.1 | -0.5 |
| 일반기계 | -0.6 | -10.5 | 8.5 | -7.9 | 2.0 | -8.6 | 10.3 |
| 철강 | -18.9 | -17.2 | -2.2 | 11.7 | 12.6 | -4.2 | -1.4 |
| 석유 | -6.2 | 1.0 | 0.3 | 6.7 | 5.5 | 6.8 | 1.6 |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 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숙박 · 음식점업(-4.5%), 도소매업(-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0%), 교육서비스업(-1.3%) 등은 감소, 운수창고업(10.1%), 정보통신업(7.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3.9%), 부동산업(3.1%), 금융 · 보험업(2.4%) 등은 늘어 1.2%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1.2 → ('24.1월)4.5 → (2월)1.2

■ **전월대비: 정보통신업(-0.4%), 교육서비스업(-0.1%) 등은 감소, 숙박 · 음식점업(5.0%), 운수창고업(1.6%), 부동산업(1.4%), 금융 · 보험업(0.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4%), 도소매업(0.1%) 등은 늘어 0.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1.4 → ('24.1월)-0.2 → (2월)0.7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

| 산업별 | 2022 | 2023 | | | 2024 | | |
|---|---|---|---|---|---|---|---|
| | 12월 | 1월 | 2월 | 12월 | 1월* | 2월* | 전월대비 |
| 서비스업(원지수) | 129.3 | 109.1 | 108.5 | 130.9 | 114.0 | 109.8 | 0.7 |
| 서비스업 | 6.9 | 4.2 | 8.9 | 1.2 | 4.5 | 1.2 | |
| 도매 및 소매 | 1.2 | -0.2 | 7.8 | -0.9 | 1.1 | -3.7 | 0.1 |
| 숙박 및 음식점 | 12.8 | 8.3 | 23.0 | -2.3 | 0.3 | -4.5 | 5.0 |
| 금융 및 보험 | 18.2 | 9.9 | 15.1 | -3.6 | 4.7 | 2.4 | 0.5 |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 3월 중 주요 11대 산업[3]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조선(102.1%), 반도체(35.7%), 컴퓨터·주변장치(19.3%), 무선통신기기(5.5%), 석유(3.1%) 등은 증가, 섬유(-14.2%), 일반기계(-10.0%), 철강(-7.8%), 자동차(-5.5%), 화학(-2.2%), 가전(-1.7%) 등은 줄어 8.3%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2월)8.7 → ('24.1월)21.9 → (2월)9.4 → (3월)8.3
- 주요 11대 산업 중 IT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장치, 무선통신기기) 4개 및 석유, 조선 등 6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중국,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역대 3월 중 1위 실적으로 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전월대비: 자동차(13.2%), 반도체(17.3%), 컴퓨터·주변장치(17.3%), 철강(7.9%), 조선(7.9%), 무선통신기기(7.8%), 섬유(6.6%), 가전(5.3%), 석유(4.8%), 화학(2.3%) 등의 수출은 늘었으나, 일반기계(-3.7%)만 줄어 9.4%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12월)5.4 → ('24.1월)-5.8 → (2월)-4.4 → (3월)9.4

| 표 3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 산업별 | 2022 | 2023 | | | | 2024 | | | | |
|---|---|---|---|---|---|---|---|---|---|---|
| | 12월 | 1월 | 2월 | 3월 | 12월 | 1월 | 2월* | 전월대비 | 3월* | 전월대비 |
| 11대 산업 | -11.5 | -19.0 | -11.5 | -17.2 | 8.7 | 21.9 | 9.4 | -4.4 | 8.3 | 9.4 |
| 반도체 | -29.1 | -44.5 | -42.4 | -34.5 | 21.7 | 56.2 | 66.7 | 6.1 | 35.7 | 17.3 |
| 자동차 | 16.6 | 9.1 | 36.3 | 39.1 | 10.1 | 21.1 | -6.2 | -12.1 | -5.5 | 13.2 |
| 화학 | -23.6 | -24.0 | -18.3 | -24.6 | 4.0 | 4.4 | -3.1 | -1.9 | -2.2 | 2.3 |
| 일반기계 | -3.9 | -16.0 | 12.9 | -0.9 | 2.1 | 14.2 | 1.1 | 1.9 | -10.0 | -3.7 |
| 철강 | -20.9 | -25.9 | -9.9 | -10.9 | -5.2 | 2.0 | -10.0 | -3.3 | -7.8 | 7.9 |
| 조선 | 76.1 | 85.0 | -10.6 | -29.7 | 46.6 | 76.1 | 27.7 | -21.1 | 102.1 | 7.9 |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로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와 PC·모바일 재고 감소 등 IT 전방수요의 회복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메모리 감산 지속으로 낸드와 D램 반도체 모두 가격 회복세를 유지하며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5.7% 증가**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3.3월)86.0(-34.5%) → ('24.3월)116.7(35.7%)
-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3.2월)45.7(-44.3%) → ('24.3월)74.5(63.0%)
- 낸드(8Gb) 고정가(달러): ('23.3월)1.81 → (9월)1.30 → ('24.3월)1.80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 **자동차는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의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1.5일)와 전년도 3월의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5.5% 감소**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3월)85.5(39.1%) → ('24.3월)80.8(-5.5%)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3월)65.0(63.6%) → ('24.3월)61.7(-5.0%)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3월)20.5(-5.6%) → ('24.3월)19.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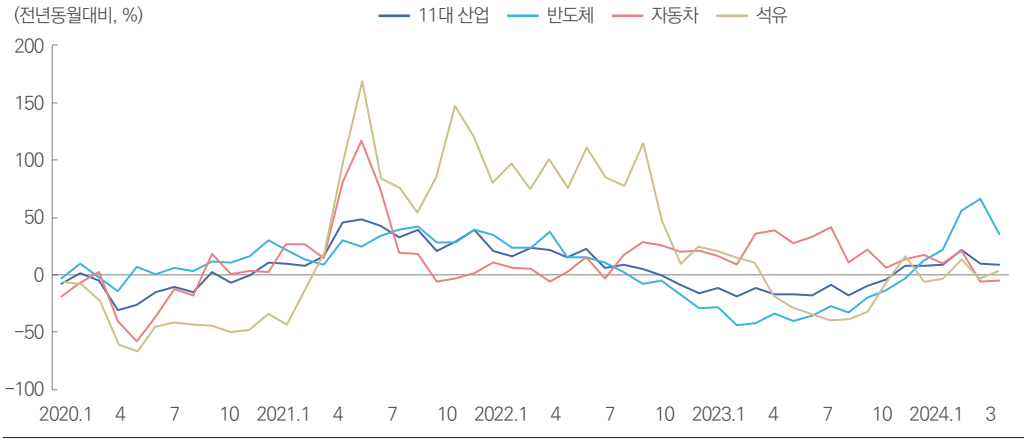
■ **일반기계는 북미·중남미 등 글로벌 인프라 투자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 EU·중국 등 글로벌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수요 감소와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3월)48.0(-0.9%) → ('24.3월)43.2(-10.0%)

■ **화학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 유가 하락(2월 유가가 3월 제품단가에 영향)과 물량 증가에 따른 주요 시장 내 공급과잉으로 수출단가 회복이 지연되며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 ('23.3월)1,350 → ('24.3월)1,239$^{e}$(-8.2%)
- 화학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3.3월)41.2(-24.6%) → ('24.3월)40.3(-2.2%)

| 그림 3 |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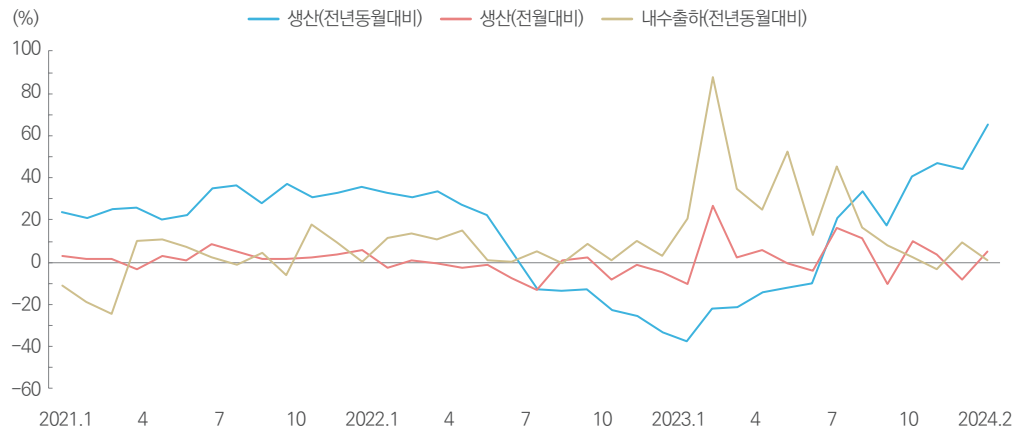
## 나. 제조업 생산

### 반도체: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큰 증가세 유지, 전월대비로도 증가

■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5.3%, 전월대비로는 4.8%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47.1 → ('24.1월)44.7 → (2월)65.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2월)3.6 → ('24.1월)-8.2 → (2월)4.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3.1 → ('24.1월)9.1 → (2월)1.0

| 그림 4 |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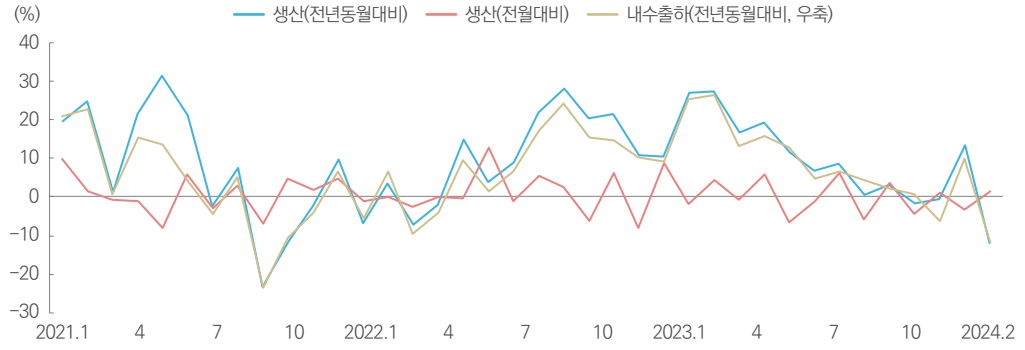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로는 증가

■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 전월대비로는 1.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0.4 → ('24.1월)13.3 → (2월)-11.9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2월)1.2 → ('24.1월)-3.2 → (2월)1.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6.2 → ('24.1월)9.9 → (2월)-11.7

|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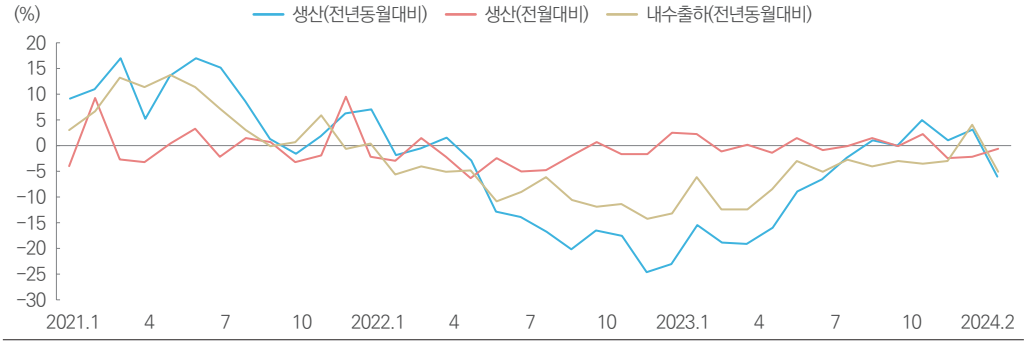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2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20.7%)과 비료, 농약 및 살균 · 살충제 제조업(-14.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1% 감소**

- 화학섬유 제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화학섬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국내 사업체의 생산이 감소,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은 설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
- 전월대비로는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12.3%)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7.4%)을 중심으로 0.5% 감소,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업체의 정기 보수로 생산이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2월) 1.2 → ('24.1월) 3.3 → (2월) -6.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2월) -2.4 → ('24.1월) -2.1 → (2월) -0.5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2월) -2.9 → ('24.1월) 4.1 → (2월) -5.0

| 그림 6| 화학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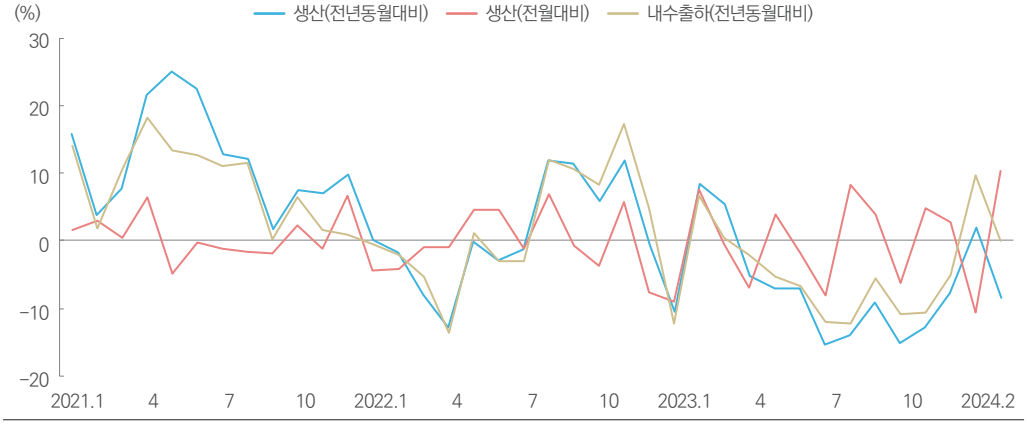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로는 증가

■ **2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6% 감소, 전월대비로는 10.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7.9 → ('24.1월)2.0 → (2월)-8.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2월)2.8 → ('24.1월)-10.8 → (2월)10.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5.2 → ('24.1월)9.8 → (2월)-0.1

| 그림 7 | 일반기계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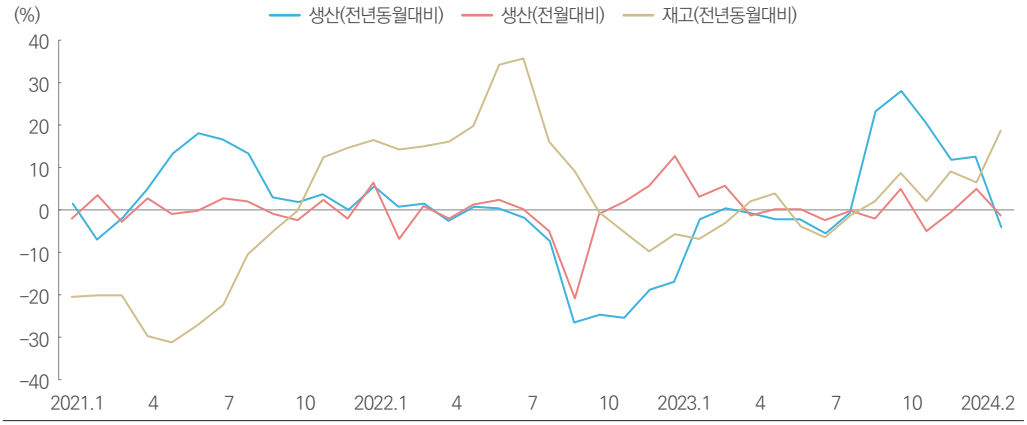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감소, 전월대비로도 1.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11.7 → ('24.1월)12.6 → (2월)-4.2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2월)-0.8 → ('24.1월)4.9 → (2월)-1.4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8.8 → ('24.1월)6.4 → (2월)18.6

| 그림 8 |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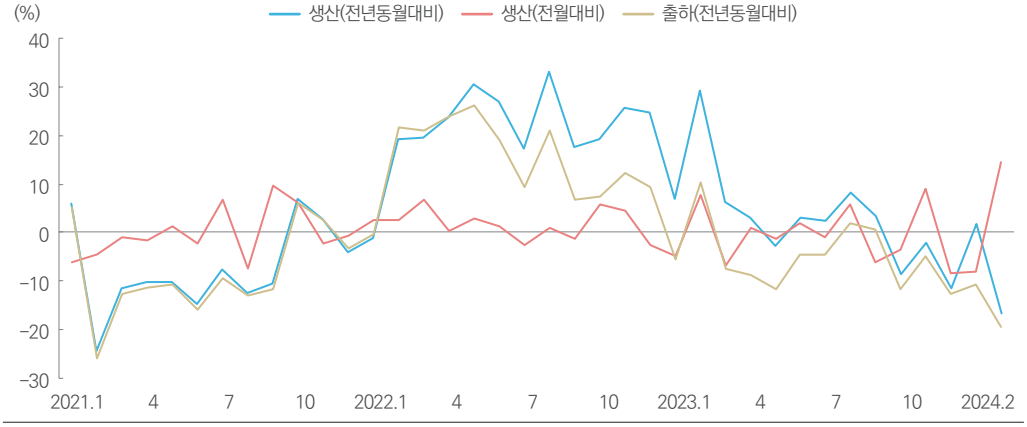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로는 증가

■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전월대비로는 14.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11.5 → ('24.1월)1.8 → (2월)-16.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12월)-8.5 → ('24.1월)-8.1 → (2월)14.6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12월)-12.7 → ('24.1월)-10.7 → (2월)-19.5

| 그림 9 |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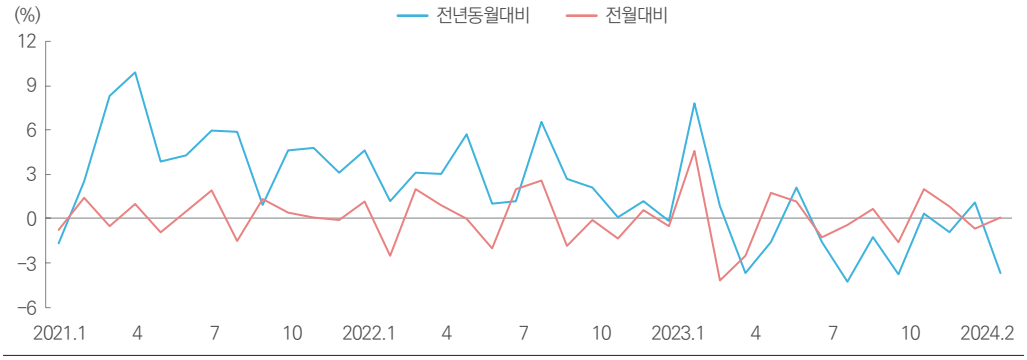
# 다. 서비스업 생산

## 도매 및 소매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2.4%)과 도매업(-5.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컸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10.6%)은 2023년 1월이었던 설명절이 2024년에는 2월로 변경되면서 음·식료품 판매가 감소
-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0%)을 중심으로 0.1% 증가, 이는 1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생산이 8.8% 감소한 데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2월)-0.9 → ('24.1월)1.1 → (2월)-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2월)0.8 → ('24.1월)-0.7 → (2월)0.1

| 그림 10 |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금융 및 보험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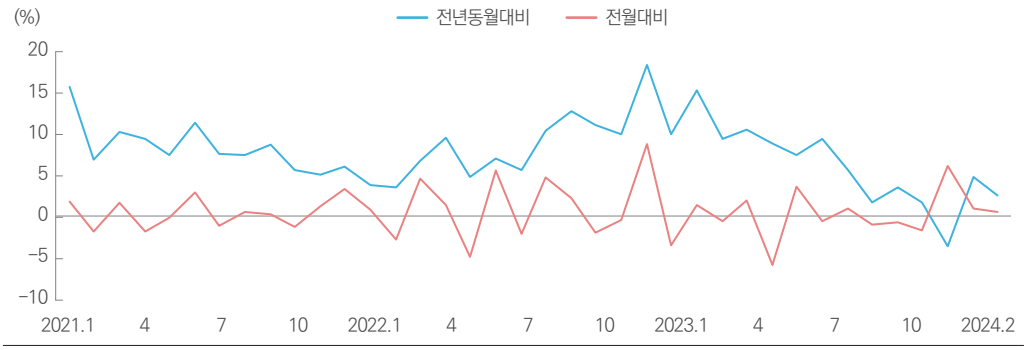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2.1%)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4%로 증가**

-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의 경우 2월 말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발표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 기인[4)]

4) 2024년 2월 외국인 주식거래대금(순매수 기준)은 8.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7배 많았다.

- 전월대비로는 0.5% 증가하였는데, 국내외 주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이 13.7% 증가하였고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이 증가[5]하면서 기타금융업의 생산이 1.6%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2월)-3.6 → ('24.1월)4.7 → (2월)2.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2월)6.1 → ('24.1월)1.0 → (2월)0.5

| 그림 11 |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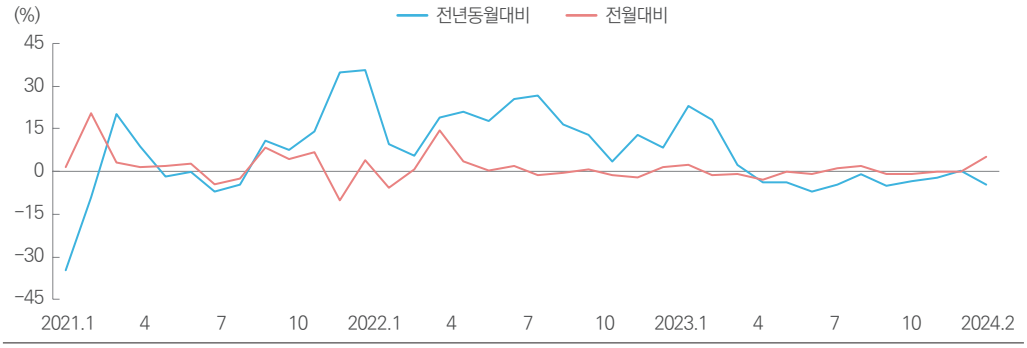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숙박 및 음식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로는 증가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전월대비로는 5.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12월)-2.3 → ('24.1월)0.3 → (2월)-4.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12월)-0.3 → ('24.1월)-0.1 → (2월)5.0

| 그림 12 |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 2024년 2월 신용카드 전업 8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와 NH농협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16.5조원으로 전월대비 93.6% 증가하였다.

# 라. 경기종합지수

## 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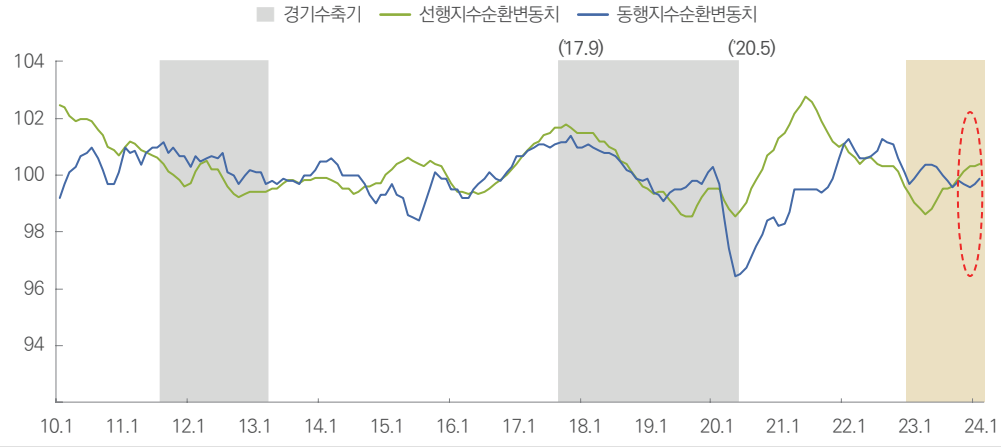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9.9)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에서 전월에 이어 증가하며 전월대비 0.2p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12월)-0.1 → ('24.1월)0.1 → (2월)0.2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4)는 건설수주액에서 감소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코스피 등에서 상승하며 전월대비 0.1p 상승**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12월)0.2 → ('24.1월)0.0 → (2월)0.1

| 그림 13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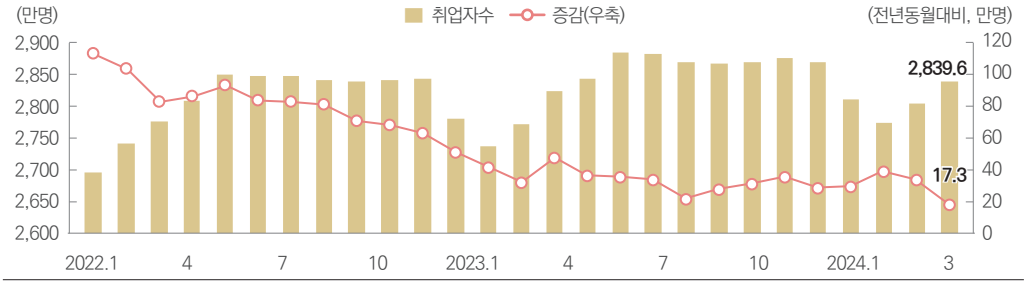
# 2 고용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 **3월 취업자 수는 2,839.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하여 증가세 둔화,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1.9만명 하락**

-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38.0 → (2월)32.9 → (3월)17.3
- 계절조정 취업자 수(전월대비, 만명): ('24.1월)8.2 → (2월)11.3 → (3월)-11.9

| 그림 14 |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4.1월)63.3 → (2월)63.6 → (3월)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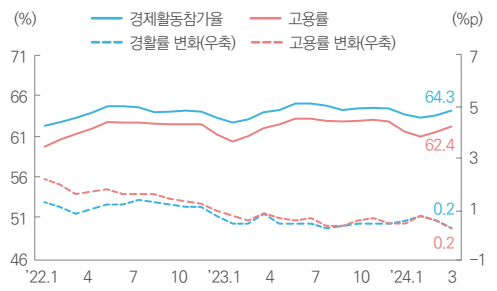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24.1월)61.0 → (2월)61.6 → (3월)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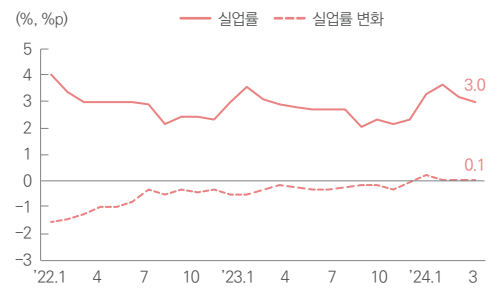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 ('24.1월)3.7 → (2월)3.2 → (3월)3.0

| 그림 15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그림 16 |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산업에서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9만명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2.0 → (2월)3.8 → (3월)4.9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4.3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28.7 → (2월)27.9 → (3월)14.3

• 전문·과학·기술업, 운수·창고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소매업은 하락, 숙박음식점업은 정체,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하락세 유지

■ **건설업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7.3 → (2월)3.6 → (3월)2.2

## 3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의 증가세 둔화 속에 15~29세 및 40대는 감소세 심화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3.3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35.0 → (2월)29.7 → (3월)23.3

■ **15~29세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감소세 유지, 감소폭 확대**

• 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8.5 → (2월)-6.1 → (3월)-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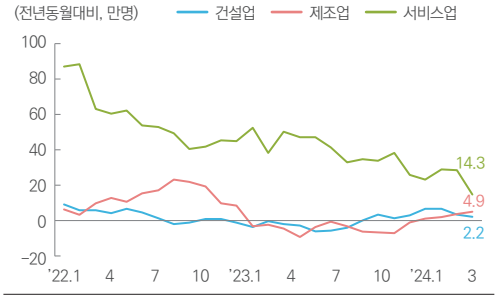
■ **30대와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

• 3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8.5 → (2월)7.1 → (3월)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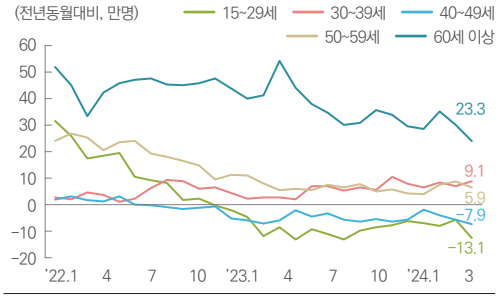
• 4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4.2 → (2월)-6.2 → (3월)-7.9

• 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7.1 → (2월)8.4 → (3월)5.9

| 그림 17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그림 18 |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월 「직업별 취업자 수」[6]는 저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 이후 37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19.5 → (2월)17.9 → (3월)17.3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1만명 증가하였으며 7개월째 증가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23.0 → (2월)19.3 → (3월)9.1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2만명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3.6 → (2월)0.3 → (3월)-2.2

## 3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 및 임시근로자는 증가, 일용 및 비임금 근로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1.5만명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증가세가 감소했지만, 일용근로자는 감소세가 완화되는 모습**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32.0 → (2월)35.7 → (3월)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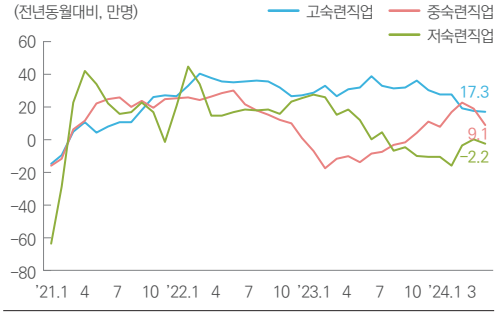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13.8 → (2월)20.7 → (3월)9.7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8.2 → (2월)-17.7 → (3월)-16.8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3만명 감소하였으며, 2개월째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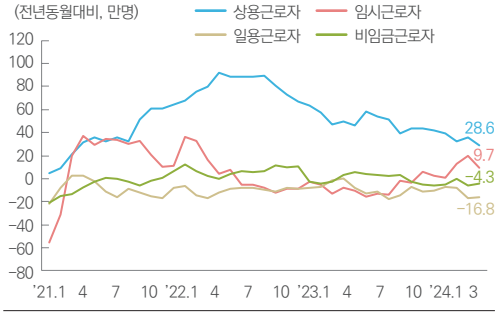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4.1월)0.4 → (2월)-5.7 → (3월)-4.3

| 그림 19|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 3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4.1월)7.6(2.5) → (2월)5.3(1.7) → (3월)5.6(1.7)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0.5%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4.1월)30.4(1.2) → (2월)27.5(1.1) → (3월)12(0.5)

## 2월 「빈 일자리 수」는 전년동월대비 10,405개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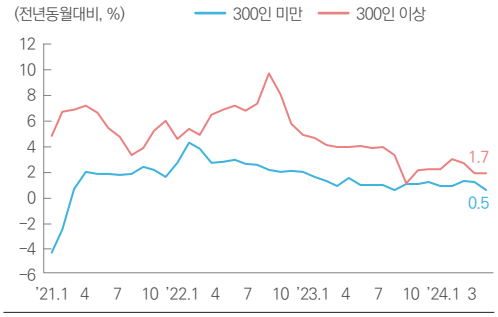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전년동월대비 1,312개 감소하였으며, 3개월째 감소세 유지**

• 빈 일자리 수(300인 이상)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12월)-0.8(-10.0) → ('24.1월)-0.9(-10.5) → ('24.2월)-1.3(-14.8)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대비 9,094개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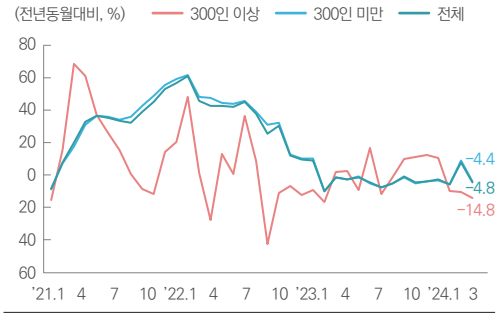
• 빈 일자리 수(300인 미만)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12월)-13.2(-6.5) → ('24.1월)14.8(-7.6) → ('24.2월)-9.1(-4.8)

| 그림 21 |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2 |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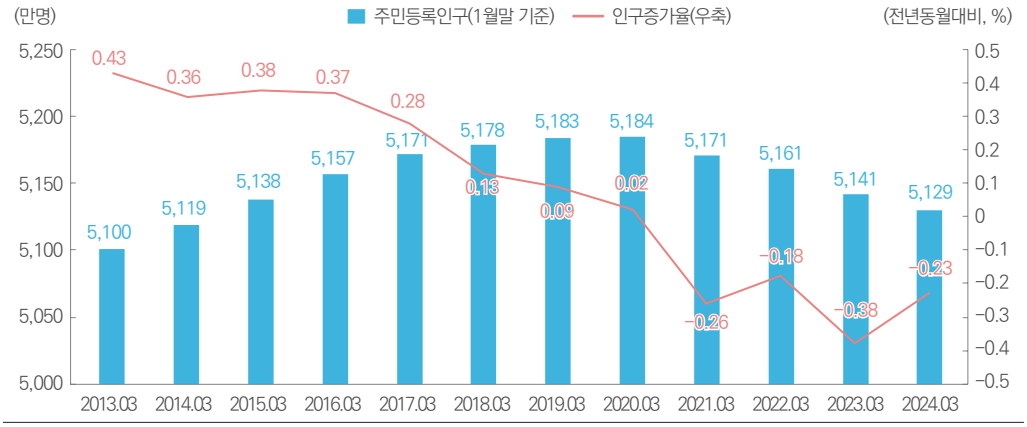
# 3 인구

## 3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12만명 감소(-0.23%)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3월 주민등록인구는 5,12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3%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각 연도 3월말 기준)은 2020년(0.02%)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0.26%)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뒤 2022년 -0.18%, 2023년 -0.38%, 2024년 -0.23%로 감소세 지속

| 그림 23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3.3~20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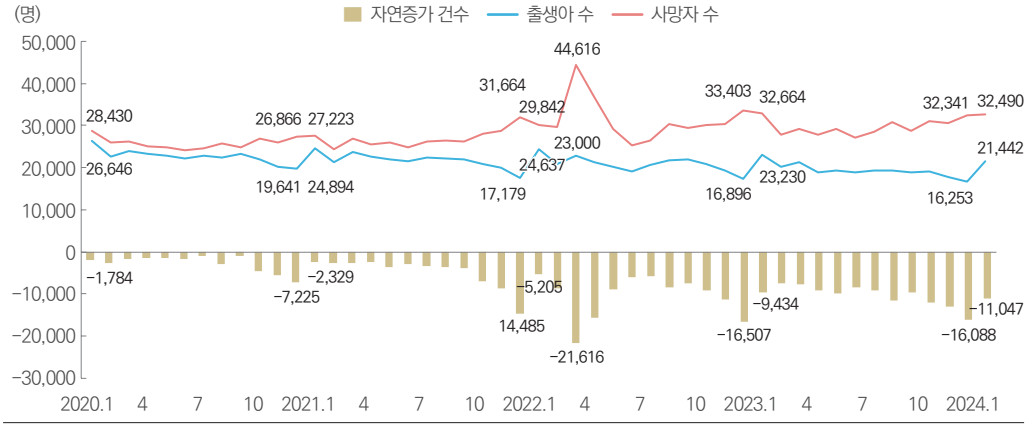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 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를 하회하여 51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1월 출생아 수는 21,44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88명 감소(-7.7%)하였음**

■ **1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4명 감소(-0.5%)한 32,490명을 기록**

| 그림 24 | 월별 출생아수, 사망자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20.1~20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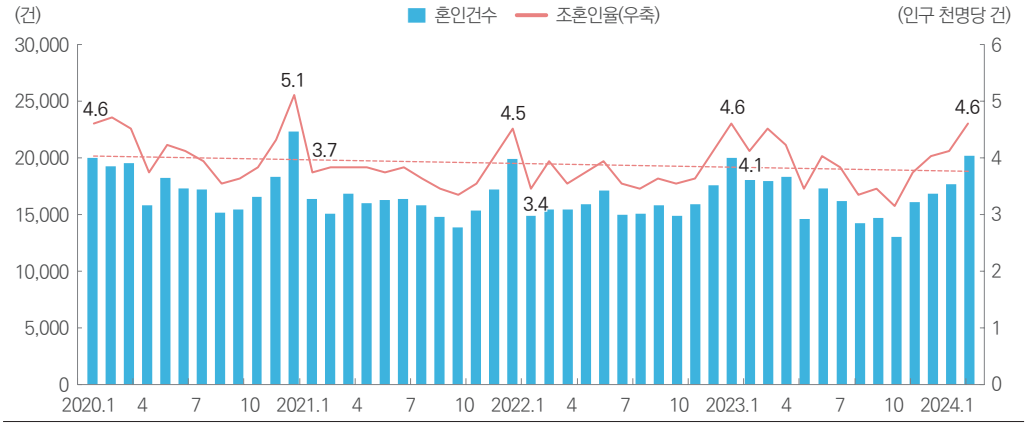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혼인건수는 20,00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85건(11.6%) 증가하였고,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4.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5건 증가**

• 각 연도 1월 기준 조혼인율은 2020년 4.6건, 2021년 3.7건. 2022년 3.4건, 2023년 4.1건

| 그림 25 |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2020.1~2024.1)




주: 점선은 조혼인율의 선형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Ⅲ

경제동향

# 금융·자산·재정

### 3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는 하락, 「원/달러 환율」은 상승

■ **3월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으로 하락**

- 국고채(3년) 금리(%): (2024.1월말)3.26 → (2월말)3.39 → (3월말)3.32

■ **3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2024.1월말)1,331 → (2월말)1,334 → (3월말)1,347

### 3월 중 「원유」,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상승

■ **원유 가격은 OPEC+의 감산 연장 등으로 전월대비 3.7% 상승,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5.9%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0.8% 하락**

- 원유 가격(달러/배럴): ('24.1월)77.7 → (2월)80.5 → (3월)83.5
- 석탄 가격(달러/톤): ('24.1월)124.9 → (2월)124.2 → (3월)131.5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4.1월)14.3 → (2월)13.6 → (3월)13.5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지수는 계절 요인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각각 2.9%, 0.6%, 1.4% 상승,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6.8% 상승**

- 농산물 지수: ('24.1월)109.0 → (2월)109.5 → (3월)112.7
- 식품 지수: ('24.1월)118.0 → (2월)116.6 → (3월)117.2
- 금속·광물 지수: ('24.1월)102.0 → (2월)100.1 → (3월)101.5
- 귀금속 지수: ('24.1월)152.6 → (2월)151.6 → (3월)162.0

### 3월 전력수급 「정산단가」는 연료비단가(석탄·가스)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8.0% 하락

■ **3월 최대전력은 81.7GW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76.2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3% 하락,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48.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7% 하락**

### 2월 「전력수요」는 산업 및 서비스부문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 **2월 가정부문의 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 수요는 4.1%, 서비스부문은 1.8% 감소**

### 3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지역 하락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15% → -0.11%)과 지방(-0.14% → -0.13%) 모두 하락폭 축소되며 전국적으로 하락폭 축소(-0.14% → -0.12%)**

### 1~2월 재정은 누계 「총수입」과 누계 「총지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

■ **1~2월 누계 총수입은 9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조원(8.0%) 증가, 1~2월 누계 총지출은 총지출은 12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조원(10.9%) 증가**

# 1 국내 금융시장

## 가. 금리

### 3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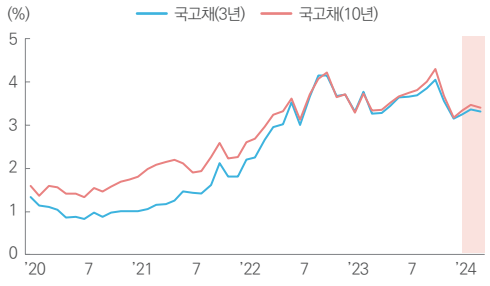
■ **3월 국고채금리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물가불안에도 불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으로 하락**

- 3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32%로 전월말 대비 0.06%p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는 3.41%로 전월말 대비 0.06%p 하락
- 3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2023년 12월말 대비로는 각각 0.17%p, 0.23%p 높은 수준

■ **한편 2월, 4월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 2월 22일, 4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2024년 4월까지 10차례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

| 그림 1 |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 3월 「회사채 금리」와 2월 「기업대출 금리」는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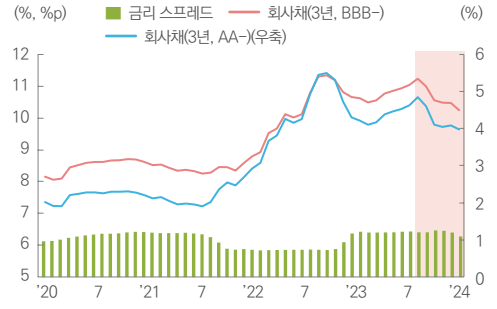
■ **3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설비·건설 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세 지연 등으로 하락**

- 3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대비 0.11%p 하락한 3.94%,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전월대비 0.23%p 하락한 10.21%를 기록
- 회사채(3년, AA-)와 회사채(3년, BBB-) 금리는 2023년말 대비로는 각각 0.13%p, 0.32%p 하락

■ **2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대출 금리 대비 크게 하락하며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 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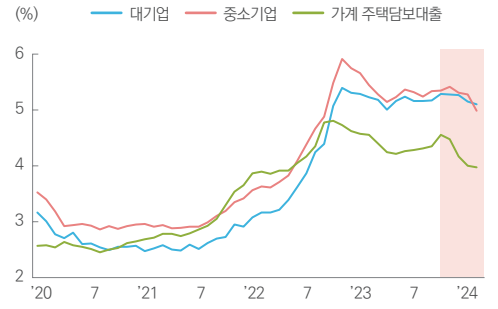
- 2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05%p 하락한 5.11%,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전월대비 0.30%p 하락한 4.98%를 기록하며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 역전이 발생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3%p 하락한 3.96%를 기록

| 그림 3 |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4 |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나. 환율

### 3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상승

■ **3월 미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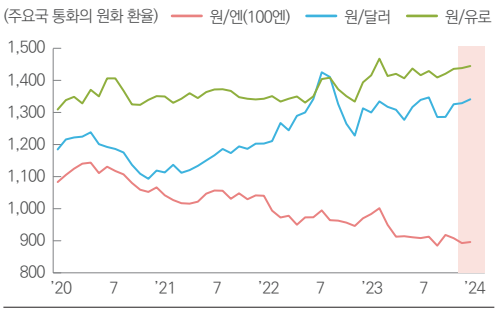
- 3월말 원/달러, 원/유로 원/엔화 환율은 각각 1,347원, 1,453원, 889원으로 전월말 대비 0.96%, 0.48%, 0.42% 상승

※ 4월 15일 원/달러 환율은 1,383원으로 물가불안 등으로 변동폭 확대

■ **한편 3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대외거래 실적 개선 등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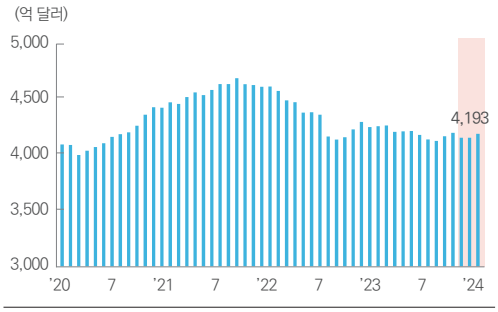
- 3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35억 달러 증가한 4,193억 달러를 기록

| 그림 5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그림 6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다. 주가

### 3월 「국내 주가」는 상승

■ **3월 국내 주가는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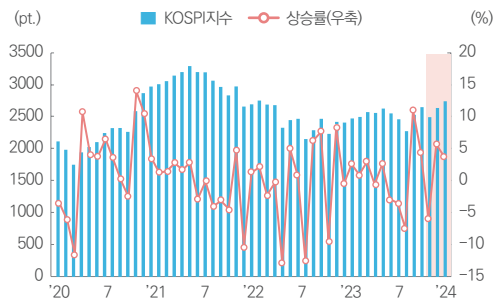
• 3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642) 대비 3.95% 상승한 2,747을 기록

■ **외국인투자자는 2023년 11월 이후 국내주식에 대한 순매수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024년 2~3월 국내주식을 순매도**

• 외국인투자자는 2023년 11월~2024년 2월 월평균 4.8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으며 2024년 3월에도 5.1조원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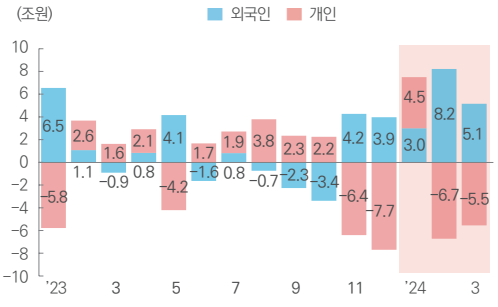
• 개인투자자는 2024년 2월 6.7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3월에도 5.5조원을 순매도

| 그림 7 |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 그림 8 |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 2 에너지 및 원자재

## 가. 국제 가격

### 3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원유 가격은 OPEC+의 감산 연장과 러시아의 추가 감산 결정[7]등의 요인으로 배럴 당 83.5달러를 나타내며 전년동월대비 9.2%, 전월대비 3.7% 상승**

• 원유 가격(달러/배럴): ('24.1월)77.7 → (2월)80.5 → (3월)83.5

### 3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석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감소세를 나타내나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톤당 131.5달러의 가격으로 전년동월대비 29.8% 하락, 전월대비 5.9% 상승**

• 석탄 가격(달러/톤): ('24.1월)124.9 → (2월)124.2 → (3월)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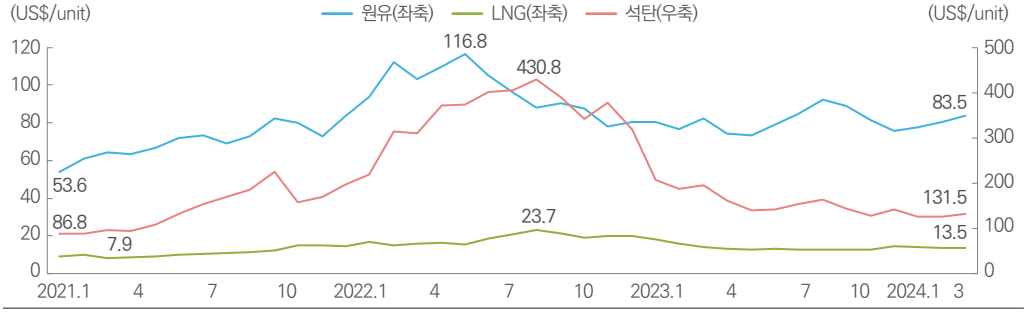
### 3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동절기를 지나며 생긴 하방 압력으로 백만비티유(MMbtu)당 13.5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5%, 전월대비 0.8%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8]): ('24.1월)14.3 → (2월)13.6 → (3월)13.5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1.5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34.9%, 전월대비 12.9% 하락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8.6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38.1% 하락, 전월대비 5.0% 상승

| 그림 9|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원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7)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는 2024년 3월 3일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분기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이중 사우디아라비아는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 연장에 합의, 러시아도 2분기에 하루 47.1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하기로 결정

8)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 3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농산물 지수는 112.7로 남반구의 유지류 주요 생산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코코넛유, 팜핵류, 코코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전월대비 2.9% 상승**

• 농산물 지수: ('24.1월)109.0 → (2월)109.5 → (3월)112.7

## 3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식품 지수는 117.2로 닭고기, 밀가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1% 하락하였고 쇠고기, 바나나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상승**

• 식품 지수: ('24.1월)118.0 → (2월)116.6 → (3월)117.2

## 3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금속·광물 지수는 101.5로 염화칼륨, 철광석, 아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4% 하락하였고, 니켈, 주석, 구리,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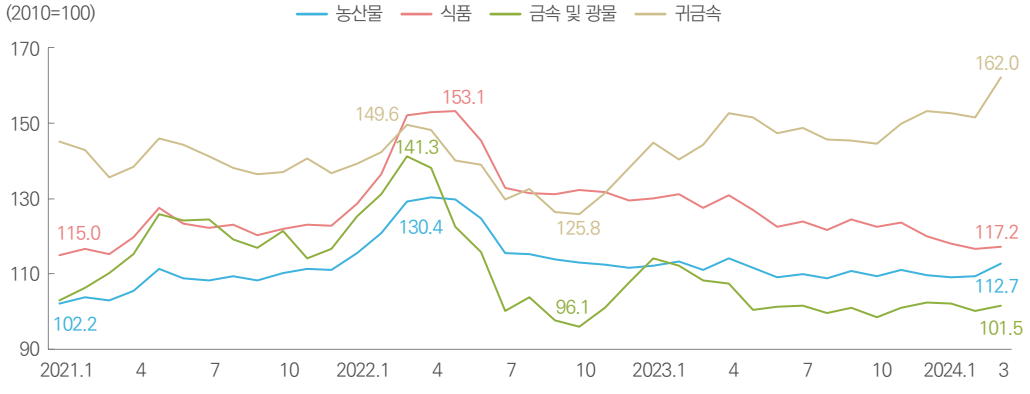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 ('24.1월)102.0 → (2월)100.1 → (3월)101.5

## 3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귀금속 지수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및 중국 등 제3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비율 증가로[9] 인해 162.0을 나타내며 전년동월대비 12.4%, 전월대비 6.8% 상승**

• 귀금속 지수: ('24.1월)152.6 → (2월)151.6 → (3월)162.0

| 그림 10 |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주: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을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9) 2022년 4월 이후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을 1조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말 기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전달보다 16만 온스 증가한 7,274만 온스로 17개월째 증가

## [BOX 1] 국내 에너지 수요

### 1월 「최종에너지 소비」[10]는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인한 산업 및 수송 부문의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1%, 전월대비 6.5% 증가

■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와 석유,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등의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천연가스(171.9), 석유(5.9), 신재생 및 기타(2.0), 석탄(1.1), 열(-0.5), 전력(-2.9), 도시가스(-6.1)

■ **전월대비로는 겨울철 난방수요로 인해 열, 도시가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6.5% 증가**

• 전월대비 증감률(%): 열(15.2), 도시가스(12.4), 전력(7.5), 천연가스(6.2), 석유(5.3), 석탄(3.3), 신재생 및 기타(-4.4),

■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는 냉방도일의 증가로 건물부문(가정.상업·공공)의 에너지소비가 각각 전월대비 13.2%, 9.1% 증가하여 전체 수요를 견인**

• 전월대비 증감률(%): 가정(13.2), 상업·공공(9.1), 산업(5.8), 수송(-0.1)

에너지원별,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 | | 2021 | 2022p | 2023p | 2023p | | 2024p | | |
|---|---|---|---|---|---|---|---|---|---|
| | | | | | 11월 | 12월 | 1월 | 전년동월 대비 | 전월 대비 |
| 합계 | | 215,664 | 214,482 | 207,620 | 17,451 | 19,285 | 20,532 | 2.1 | 6.5 |
| 전년동기대비 | | 5.8 | -0.5 | -3.2 | 3.0 | -6.3 | 2.1 | - | - |
| 에너지원별 | 석탄 | 32,251 | 30,563 | 30,134 | 2,585 | 2,533 | 2,616 | 1.1 | 3.3 |
| | 석유 | 103,310 | 101,602 | 96,694 | 8,205 | 8,531 | 8,983 | 5.9 | 5.3 |
| | 천연가스 | 2,131 | 2,227 | 2,804 | 242 | 325 | 346 | 171.9 | 6.2 |
| | 도시가스 | 23,382 | 23,837 | 22,075 | 1,917 | 2,888 | 3,246 | -6.1 | 12.4 |
| | 전력 | 44,748 | 46,041 | 45,982 | 3,611 | 3,896 | 4,190 | -2.9 | 7.5 |
| | 열 | 2,701 | 2,946 | 2,631 | 276 | 453 | 522 | -0.5 | 15.2 |
| | 신재생 및 기타 | 7,141 | 7,265 | 7,298 | 615 | 658 | 629 | 2.0 | -4.4 |
| 부문별 | 산업 | 132,960 | 130,463 | 126,164 | 10,618 | 10,923 | 11,560 | 4.4 | 5.8 |
| | 수송 | 36,636 | 36,294 | 35,243 | 2,971 | 3,013 | 3,011 | 7.5 | -0.1 |
| | 가정 | 22,940 | 23,560 | 21,843 | 1,933 | 3,012 | 3,411 | -5.4 | 13.2 |
| | 상업·공공 | 23,128 | 24,165 | 24,370 | 1,930 | 2,337 | 2,549 | -2.9 | 9.1 |

주: 1) 2022년, 2023, 2024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3) 신재생 및 기타는 바이오 및 폐기물, 지열, 태양 및 기타 포함, 수력은 합계에 포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10)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그리고 상업·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 나. 전력수급동향

### 3월의 「정산단가」는 연료비단가(석탄·가스)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8.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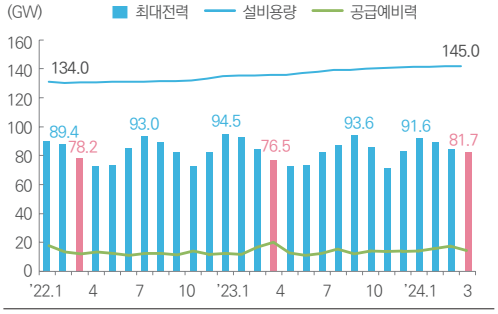
■ **3월 최대전력은 81.7GW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하였고,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12.0GW, 전력공급예비율 16.8%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11]**

- 3월의 평균 평균기온은 6.9℃로 평년(6.1℃)보다 높았음

■ **3월 1kWh당 정산단가[12]는 122.1원으로 석탄 및 가스발전 연료비단가가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8.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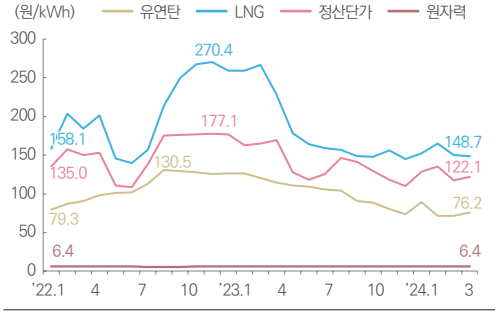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13]는 1kWh당 76.2원으로 전월(71.4원)대비 6.7% 상승하였지만 전년동월(114.1원)대비로는 33.3% 하락하였으며,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48.7원으로 전년동월(227.6원)대비 34.7%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22.1원으로 전월대비로는 3.9%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169.5원)대비로는 28.0% 하락하였고,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대비 31.0% 하락

| 그림 11 |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2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1)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12)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의미

13)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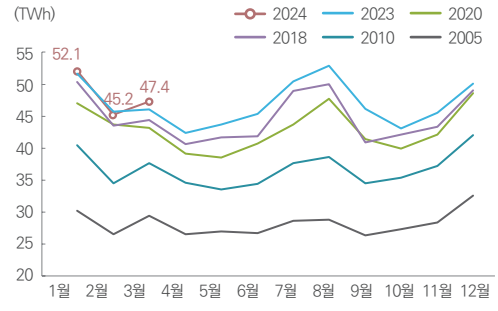
## 3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는 8.6%, 가스는 4.4% 증가

■ **3월 전력거래량[14]은 47,361GWh로 전월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9% 증가**

■ **3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는 8.6%, 가스는 4.4%, 원자력 1.5%, 석탄은 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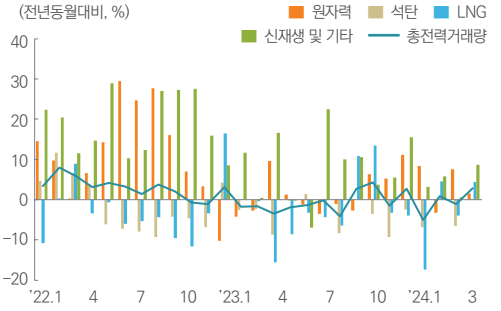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1.0%, 가스 30.4%, 석탄 26.0%, 신재생 및 기타 11.6% 순

| 그림 13 |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4 |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월 「전력수요」는 산업 및 서비스부문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 **2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2.5% 감소(−1,177GWh)했는데, 가정부문의 수요가 1.0% 증가(71GWh)한 반면, 산업부문의 수요는 4.1% 감소(−837GWh)**

• 전년동월대비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1.0%, 공공부문은 0.1%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은 4.1%, 서비스부문은 1.8% 감소

• 총 전력수요에서 각 부문의 비중은 산업 48.6%, 서비스부문 31.4%, 가정부문 14.7%, 공공부문 5.2%였음

14)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표 1 |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 | 2021 | 2022 | 2023 | 2024p | | | |
|---|---|---|---|---|---|---|---|
| | | | | 2월 | 1월 | 2월 | 전년동월 대비 | 전월 대비 |
| 계 | 533,431 | 547,933 | 545,966 | 47,875 | 49,630 | 46,698 | -2.5 | -5.9 |
| 전년동기대비 | 4.7 | 2.7 | -0.4 | 0.7 | -3.1 | -2.5 | - | - |
| 가정부문 | 77,558 | 78,558 | 79,886 | 6,796 | 6,985 | 6,867 | 1.0 | -1.7 |
| 공공부문 | 25,153 | 26,218 | 26,604 | 2,435 | 2,711 | 2,437 | 0.1 | -10.1 |
| 서비스부문 | 148,060 | 155,220 | 157,771 | 14,950 | 15,416 | 14,683 | -1.8 | -4.8 |
| 산업부문 | 282,660 | 287,937 | 281,705 | 23,694 | 24,519 | 22,711 | -4.1 | -7.4 |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4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 3 부동산

## 3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12%, 수도권은 –0.11%, 지방은 –0.13%로 전지역 전월대비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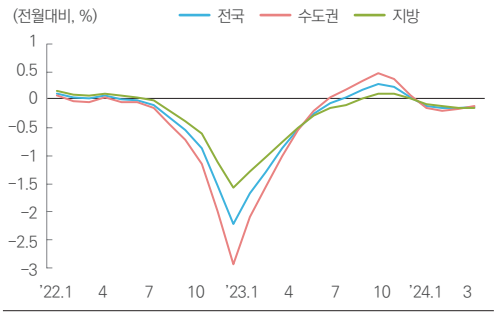
- 서울이 보합 전환된 영향 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폭 축소
-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25개 → 44개)은 증가, 보합 및 하락지역(153개 → 134개)은 감소

## 3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수도권이 0.19%로 상승세 유지, 지방은 –0.03%로 하락세 유지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0.0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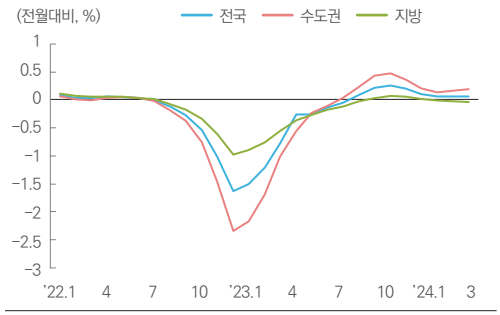
-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월세 상승세 유지

| 그림 15 |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그림 16 |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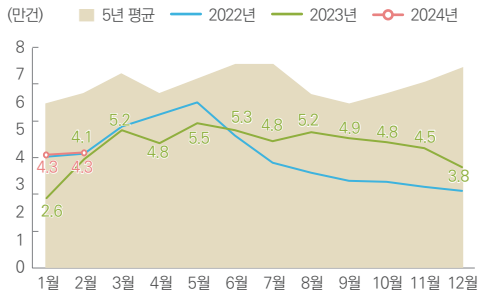
## 2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도 전년대비 증가

■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 3,491건으로 전월대비 1.1% 증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수도권(1만 8,916건)은 전월 대비 7.4% 증가, 지방(2만 4,575건)은 전월대비 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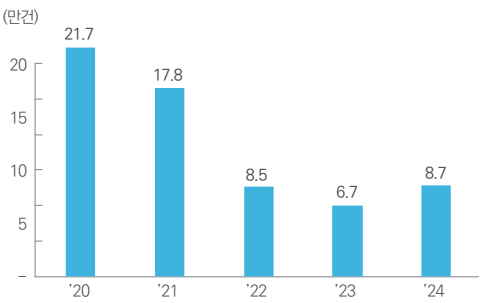
■ **2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8만 6,524건으로 전년 동기(6만 6,952건) 대비 29.2% 증가**

| 그림 17 |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18 | 연도별 2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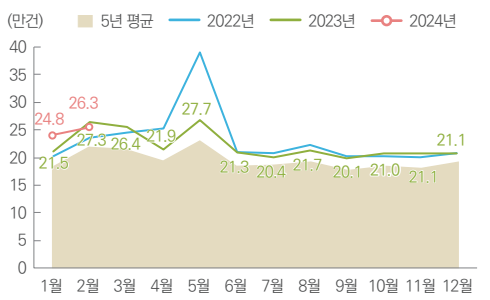
## 2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도 전년대비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26만 2,523건으로 전월대비 6.0% 증가, 전년동월대비 3.9% 감소**

• 전세(10만 7,811건)는 전월대비 1.3% 감소, 월세(15만 4,712건)는 전월대비 1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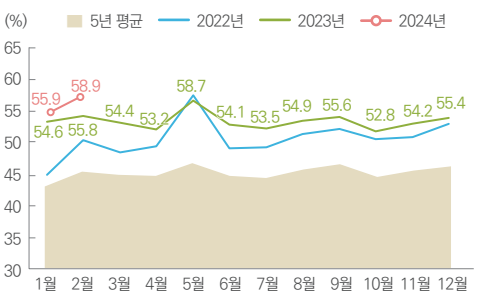
■ **2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51만 145건으로, 전년 동기(48만 7,912건) 대비 4.6% 증가**

| 그림 19 |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20 |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 4 재정

## 가. 총수입

### 1월~2월 누계 총수입은 58.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조원(8.0%) 증가[15)]

■ **2월 전년동월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5.2%로 2개월 연속 플러스**

- 전년동월대비 총수입 증가율: 2023년 12월 −2.8%, 2024년 1월 9.3%, 2024년 2월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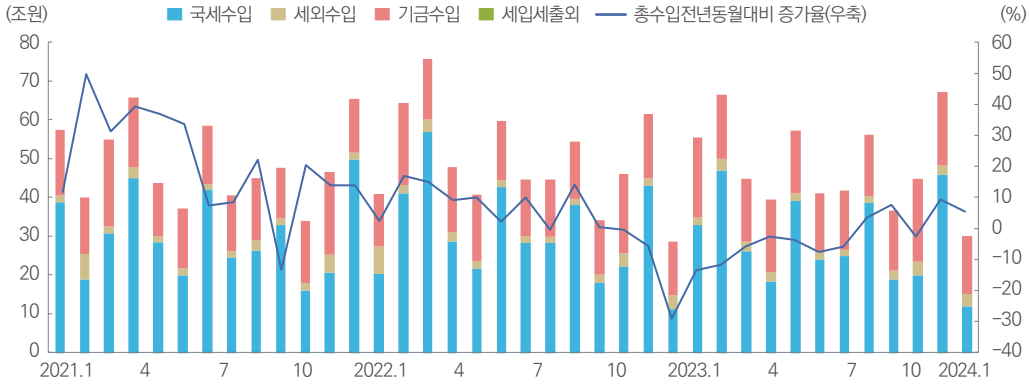
■ **2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8조원 증가한 58.0조원**

-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0.3조원 감소한 24.1조원
- 법인세는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0.1조원 증가한 3.5조원
-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7조원 증가한 17.6조원
-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0.1조원 감소한 1.1조원

■ **2월 누계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2월 누계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4조원 증가한 33.7조원**

| 그림 21 | 월별 총수입 실적치 추이(2021.1~2024.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이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의 실적치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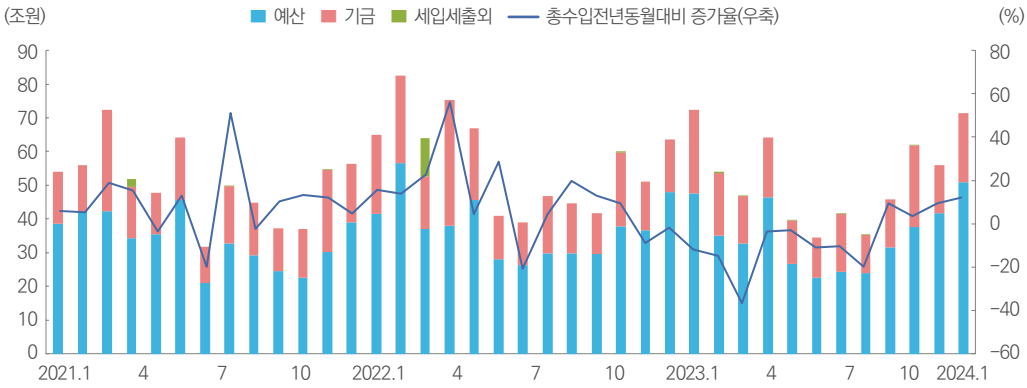
## 나. 총지출

### 1월~2월 누계 총지출은 12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조원(10.9%) 증가

■ **재정의 신속집행에 따라 2월 총지출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한 71.2조원**

• 전년동월대비 총지출 증가율: '24년 1월 9.4%, 24년 2월 12.1%

| 그림 22 | 월별 총지출 실적치 추이(2021.1~2024.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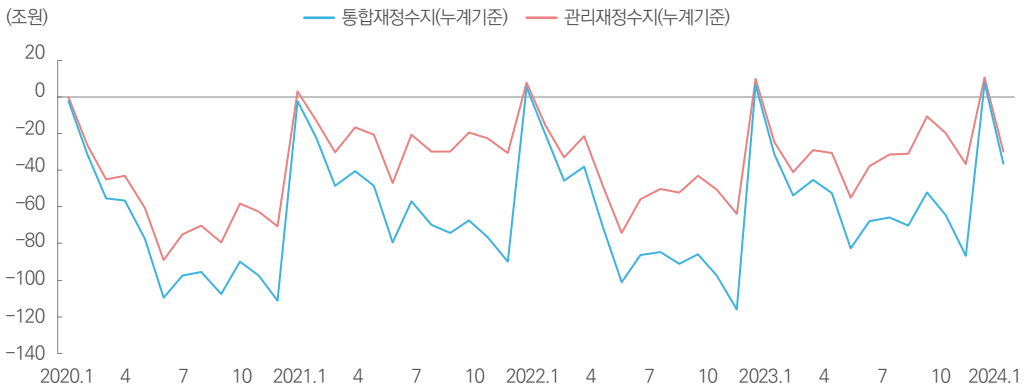
## 다. 재정수지

### 1~2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

■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6.2조원 감소**

■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36.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5.3조원 감소**

| 그림 23 | 월별 누계기준 재정수지 추이(2020.1~2024.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국 경제 지표

(%)

| | | 2022 | 2023 | | | | | 2024 | | |
|---|---|---|---|---|---|---|---|---|---|---|
| | | 연간 | 연간 | 1Q | 2Q | 3Q | 4Q | 12월 | 1월 | 2월 | 3월 |
| 생산 | 미국 | 3.4 | 0.2 | -0.3 | 0.8 | 1.6 | -1.8 | -0.3 | -0.5 | 0.1 | - |
| | 유로 | -0.2 | 0.0 | -0.1 | 0.3 | -0.6 | 0.5 | 1.6 | -3.2 | - | - |
| | 일본 | 0.0 | -1.4 | -1.7 | 1.2 | -1.4 | 1.1 | 1.2 | -6.7 | -0.1 | - |
| 소비 | 미국 | 2.5 | 2.2 | 0.9 | 0.2 | 0.8 | 0.8 | 0.5 | -0.2 | 0.4 | |
| | 유로 | -0.2 | 0.0 | -0.1 | 0.1 | -0.3 | -0.1 | -0.6 | 0.0 | -0.5 | - |
| | 일본 | 2.6 | 5.7 | 2.0 | 1.3 | 1.9 | -0.9 | -1.5 | 0.2 | 1.5 | - |
| 물가 | 미국 | 8.0 | 4.1 | 5.8 | 4.0 | 3.5 | 3.2 | 3.4 | 3.1 | 3.2 | 3.5 |
| | 유로 | 8.4 | 5.5 | 8.0 | 6.2 | 4.9 | 2.7 | 2.9 | 2.8 | 2.6 | 2.4 |
| | 일본 | 2.5 | 3.3 | 3.6 | 3.4 | 3.1 | 2.9 | 2.6 | 2.1 | 2.8 | - |
| 국채 금리 | 미국 | 3.0 | 4.0 | 3.5 | 3.8 | 4.6 | 3.9 | 3.9 | 3.9 | 4.3 | 4.2 |
| | 유로 | 1.2 | 2.5 | 2.3 | 2.4 | 2.8 | 2.0 | 2.0 | 2.2 | 2.4 | 2.3 |
| | 일본 | 0.2 | 0.6 | 0.4 | 0.4 | 0.8 | 0.6 | 0.6 | 0.7 | 0.7 | 0.7 |

주: 1. 생산 및 소비는 전기대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Datastream

IV

경제동향

# 해외경제 동향

## 미국 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며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12월)-0.3 → ('24.1월)-0.5 → (2월)0.1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0.2 → (2월)0.4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4.1월)25.6 → (2월)27.0 → (3월)30.3

##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11월)6.6 → (12월)6.8 → ('24.1-2월)7.0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1월)10.1 → (12월)7.4 → ('24.1-2월)5.5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11월)2.9 → (12월)3.0 → ('24.1-2월)4.2
- 종합PMI: ('24.1월)50.9 → (2월)50.9 → (3월)52.7

##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 산업생산(전월대비, %): ('23.11월)0.4 → (12월)1.6 → ('23.1월)-3.2
- 종합PMI(전월대비, %): ('24.1월)47.9 → (2월)49.2 → (3월)50.3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6 → ('24.1월)0.0 → (2월)-0.5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2.6 → (3월)2.4

## 일본경제는 소비가 개선세를 보였으나 생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3.12월)1.2 → ('24.1월)-6.7 → (2월)-0.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1.5 → ('24.1월)0.2 → (2월)1.5
- 종합PMI: ('23.12월)50.0 → ('24.1월)51.5 → (2월)50.6 → (3월)51.7

## 3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주요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상승

- 3월말 미국 및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각각 0.05%p, 0.11%p 하락한 4.20%, 2.30%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0.02%p 상승한 0.73%를 기록
- 3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0.14%, 0.91%, 0.47% 상승

# 1 미국

##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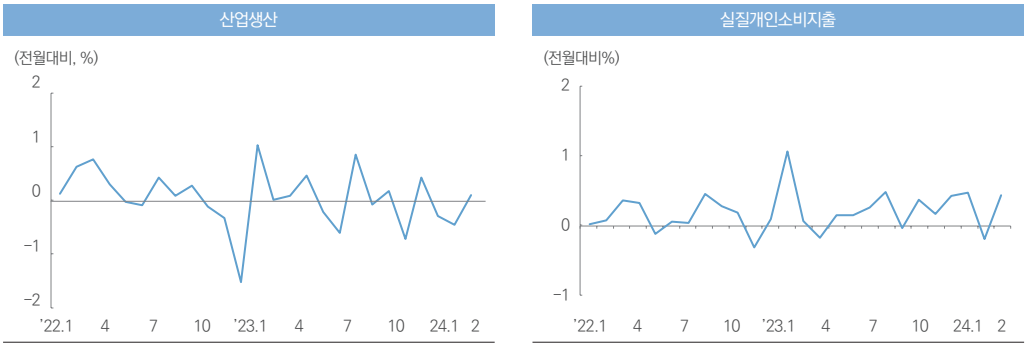
■ **2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0.8%)과 광업(2.2%)에서 증가하며 전월대비 증가 전환**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12월)-0.3 → ('24.1월)-0.5 → (2월)0.1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3.10월)0.1 → ('24.1월)-1.1 → (2월)0.8
-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3월 중 50.3로 기준치(50)를 상회하며 전월보다 상승하였고, 비제조업지수는 51.4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4.1월)49.1 → (2월)47.8 → (3월)50.3
- ISM비제조업 PMI(기준치 50): ('24.1월)53.4 → (2월)52.6 → (3월)51.4

■ **2월 중 소비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소비(0.6%)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화소비(0.1%)도 늘며 전월(-0.2%)보다 증가**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0.2 → (2월)0.4
- 3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4.1월)110.9 → (2월)104.8 → (3월)104.7

| 그림 1 |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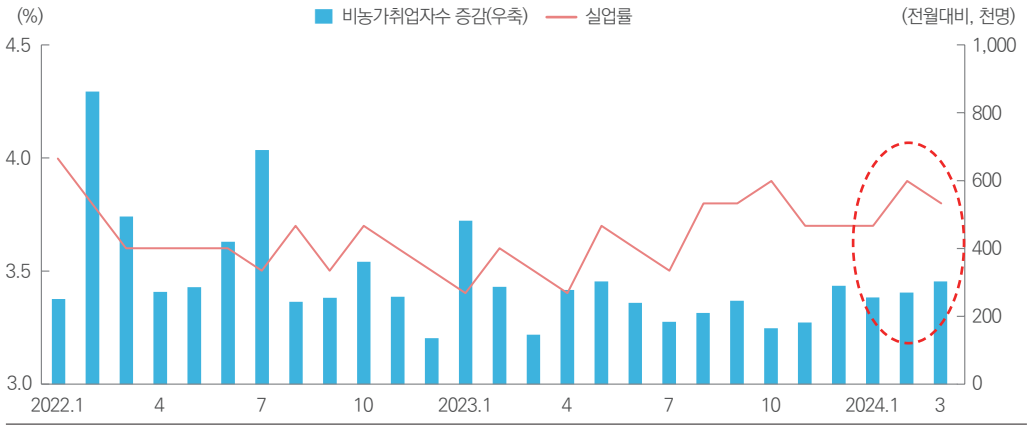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3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는 등 견실한 흐름 유지**

- '24년 3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0.3만 명 증가하여 전월(27.0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3.8%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업종별로는 교육·의료업(8.8만 명), 여가·음식·숙박(4.9만 명), 건설(3.9만 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4.1월)25.6 → (2월)27.0 → (3월)30.3
- 실업률(%): ('24.1월)3.7 → (2월)3.9 → (3월)3.8

| 그림 2 |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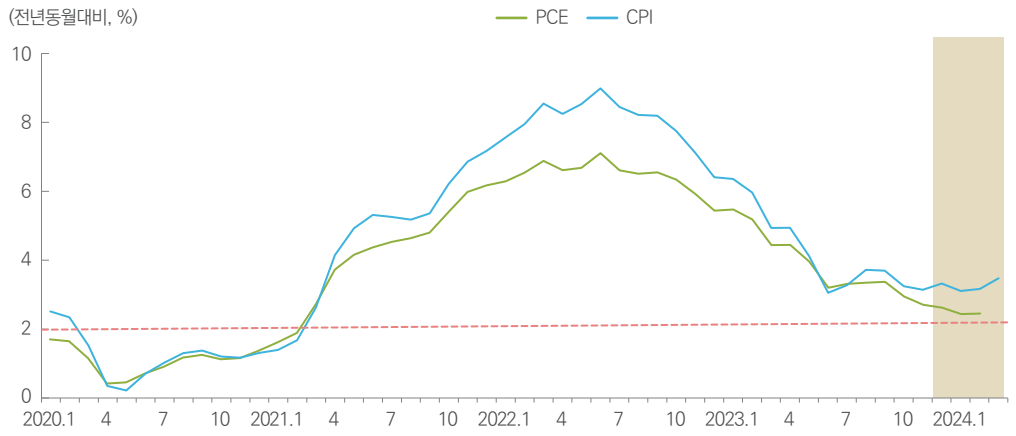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2월 중 「PCE물가」는 서비스가격이 전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가 유지(3.9% → 3.8%)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전월보다 소폭 오름세가 확대되었고, 3월 중 「소비자물가」는 3.5%로 예상치(3.4%)를 상회하며 상승폭 확대**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12월)2.6 → ('24.1월)2.4 → (2월)2.5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4.1월)3.1 → (2월)3.2 → (3월)3.5
- 향후 12개월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은 '24년 1월 중 2.9%로 전월에 이어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4.1월)2.9 → (2월)3.0 → (3월)2.9

| 그림 3 |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3월 중 시장금리는 장기금리(국채 10년물)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연준의 FOMC회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월평균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3월 중 4.2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단기금리(2년물기준)는 4.59%로 5bp 상승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4.1월)4.06 → (2월)4.21 → (3월)4.21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4.1월)4.32 → (2월)4.54 → (3월)4.59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4.1월)-0.26 → (2월)-0.33 → (3월)-0.38

■ **미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5.25~5.50%)에서 동결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

- 수정경제전망에서는 '24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종전(1.4%)보다 상향 조정하였고, PCE상승률은 2.4%로 종전 전망을 유지
- 정책금리는 '24년말 4.6%로 하락하고, '25년말과 '26년말에는 각각 3.9%, 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2 중국

##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2024년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0%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2.3%), 제조업(7.7%), 전기·가스·수도업(7.9%)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11월)6.6 → (12월)6.8 → ('24.1-2월)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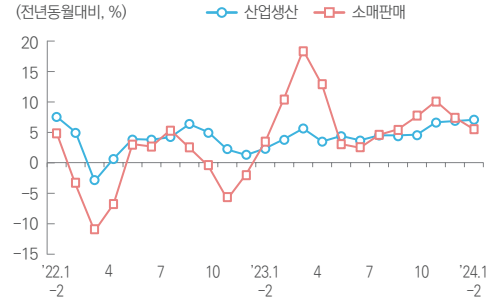
■ **2024년 1-2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4.6%)과 외식업(12.5%)에서 모두 증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1월)10.1 → (12월)7.4 → ('24.1-2월)5.5

■ **2024년 1-2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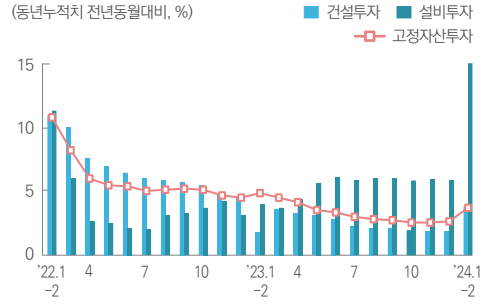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4.3%)와 설비투자(17.0%)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11월)2.9 → (12월)3.0 → ('24.1-2월)4.2

| 그림 4 |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 그림 5 |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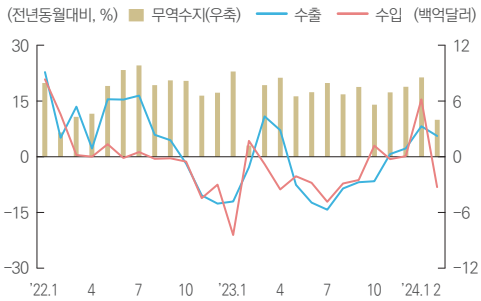
■ **2024년 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397.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무역수지(억달러): ('23.12월)753.1 → ('24.1월)854.6 → (2월)397.1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2월)2.2 → ('24.1월)8.2 → (2월)5.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2월)0.1 → ('24.1월)15.4 → (2월)-8.2

■ **2024년 2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3%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 2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4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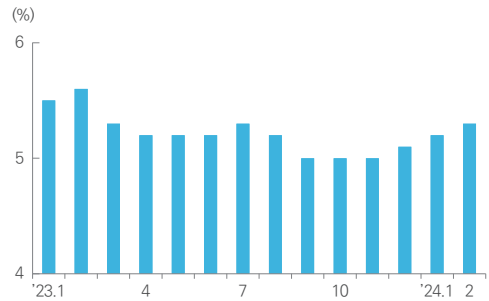
- 실업률(%): ('23.12월)5.1 → ('24.1월)5.2 → (2월)5.3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3.12월)1,244 → ('24.1월)700 → (2월)146

| 그림 6 |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 그림 7 |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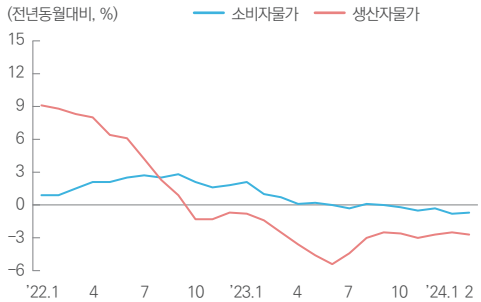
■ **2024년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식료품 물가(-0.9%)는 하락하였으나 식료품외 물가(1.1%)의 상승이 지속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2월)-0.3 → ('24.1월)-0.8 → (2월)0.7

■ **2024년 3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2.7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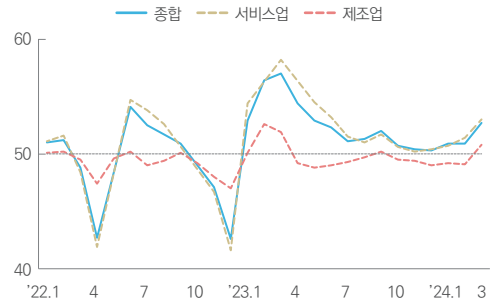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면서 전월보다 1.8p 상승
- 2024년 3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50.8, 53.0을 기록
- 종합PMI: ('24.1월)50.9 → (2월)50.9 → (3월)52.7

| 그림 8 |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 그림 9 |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 3 유로지역

##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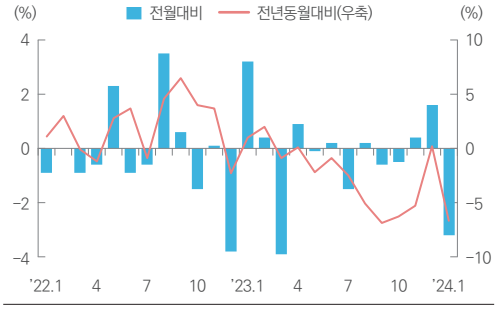
■ **1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3.2% 감소**

- 소비재(0.2%), 중간재(2.6%)에서 증가했으나 자본재(-14.5%)에서 크게 감소
- 국가별로는 프랑스(-0.9%), 이탈리아(-1.2%)를 중심으로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3.11월)0.4 → (12월)1.6 → ('23.1월)-3.2

■ **3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50.3으로 50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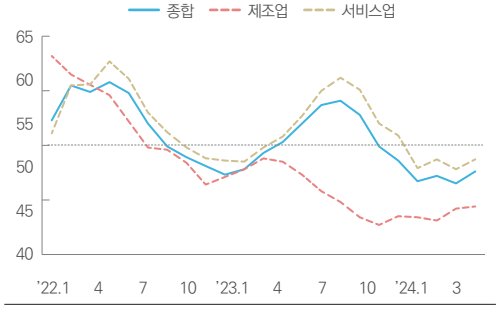
- 서비스 PMI는 51.5로 상승했으나 제조업 PMI는 43.4으로 대폭 하락
- 유로지역 종합PMI(전월대비, %): ('24.1월)47.9 → (2월)49.2 → (3월)50.3
- 유로지역 제조업PMI(전월대비, %): ('24.1월)46.5 → (2월)46.1 → (3월)43.4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전월대비, %): ('24.1월)48.4 → (2월)50.2 → (3월)51.5

| 그림 10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 그림 11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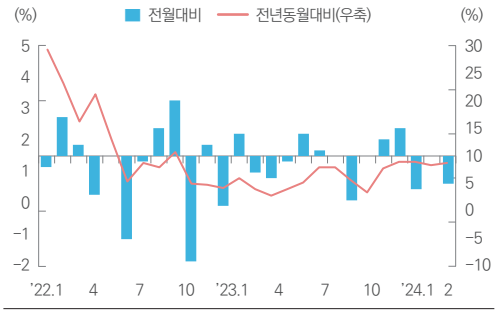
■ **2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0.5% 감소**

- 소매판매는 온라인 소매판매(-0.7%) 식료품(-0.4%), 비식료품(-0.2%) 등을 중심으로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6 → ('24.1월)0.0 → (2월)-0.5

■ **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4.9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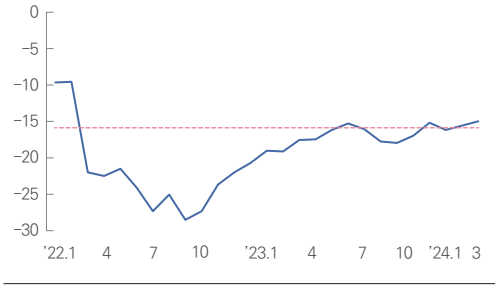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24.1월)-16.1 → (2월)-15.5 → (3월)-14.9

| 그림 12 |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3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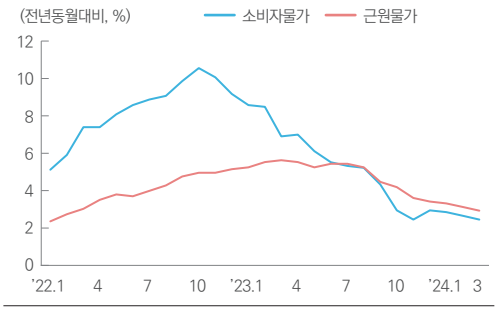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 ■ 3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2.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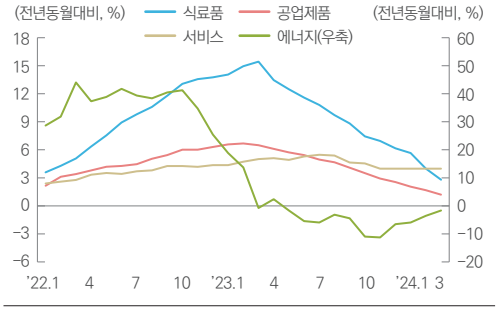
- 에너지 물가하락이 지속되고, 근원물가도 상승세 둔화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2.6 → (3월)2.4
- 유로지역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월)3.3 → (2월)3.1 → (3월)2.9
- 유로지역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4.1월)-6.1 → (2월)-3.7 → (3월)-1.8

| 그림 14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5 | 유로지역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 2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5%

- 2월 청년실업률은 14.8%
- 유로지역 실업률(%): ('23.12월)6.4 → ('24.1월)6.6 → (2월)6.5

# 4 일본

## 일본경제는 소비가 개선세를 보였으나 자동차 관련 일부 업체의 조업 중단으로 생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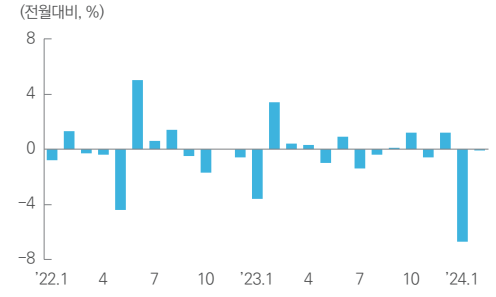
■ **2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

- 자동차 부문의 부진과 지진 발생 지역의 생산 감소로 전월의 감소세를 지속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1.2 → ('24.1월)-6.7 → (2월)-0.1

■ **3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기준치(50)를 상회하며 개선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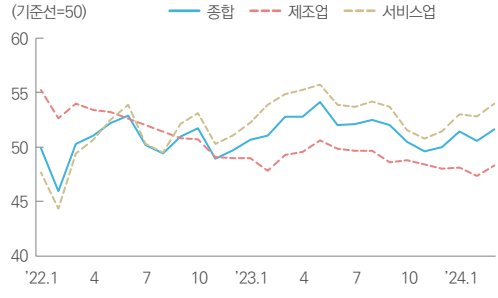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전월 수준을 지속한 반면 서비스 PMI는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 종합PMI: ('23.12월)50.0 → ('24.1월)51.5 → (2월)50.6 → (3월)51.7
- 제조업PMI: ('23.12월)47.9 → ('24.1월)48.0 → (2월)47.2 → (3월)48.2
- 서비스PMI: ('23.12월)51.5 → ('24.1월)53.1 → (2월)52.9 → (3월)54.1

| 그림 16 |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7 |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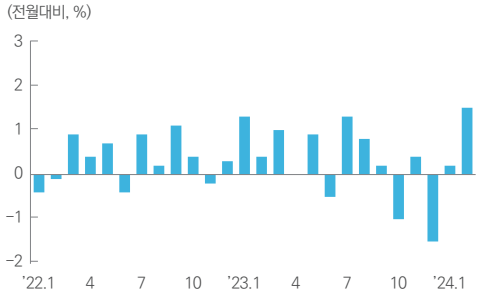
■ **2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5%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4.6% 증가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1.5 → ('24.1월)0.2 → (2월)1.5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2월)2.4 → ('24.1월)2.1 → (2월)4.6

■ **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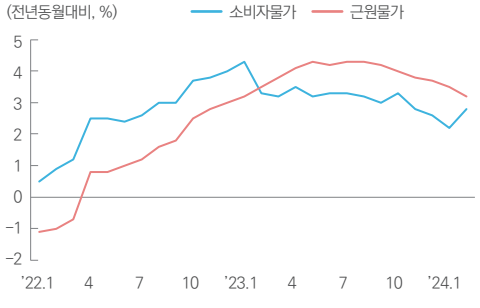
-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12월)2.6 → ('24.1월)2.1 → (2월)2.8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3.12월)3.7 → ('24.1월)3.5 → (2월)3.2

| 그림 18 |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19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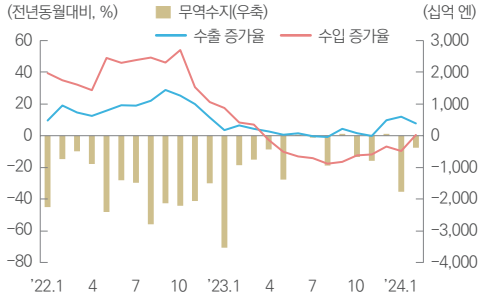
## ■ 2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377.8십억엔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는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적자폭은 축소됨
- 무역수지(십억엔): ('23.12월)58.9 → ('24.1월)-1,766.5 → (2월)-377.8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12월)9.7 → ('24.1월)11.9 → (2월)7.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12월)-6.8 → ('24.1월)-9.7 → (2월)0.5

## ■ 3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51.4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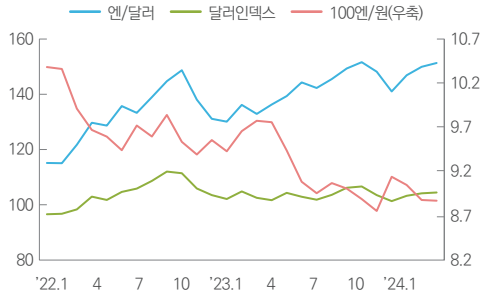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월말): ('23.12월)141.0 → ('24.1월)146.9 → (2월)150.0 → (3월)151.4

| 그림 20 |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21 |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5 글로벌 금융시장

## 가. 금리

### 3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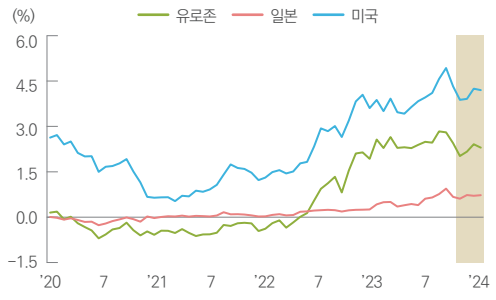
■ **3월 미국,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물가불안 지속에도 불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

- 3월말 미국 및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각각 4.20%, 2.30%로 전월말 대비 0.05%p, 0.11%p 하락
- 한편 3월말 일본의 국채(10년) 금리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02%p 상승한 0.73%를 기록

■ **한편 미 연준은 2023년 7월 기준금리를 5.00~5.25%에서 5.25~5.50%로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2024년 2월, 3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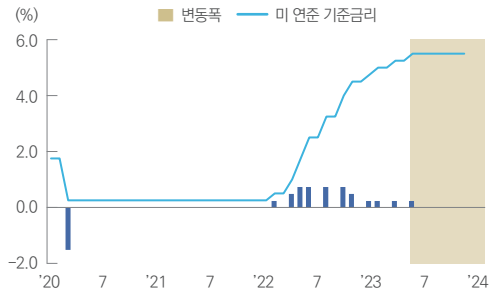
- 미 연준의 기준금리 5.25~5.50%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그림 22 |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 그림 23 | 미 연준 기준금리 추이




자료: Morningstar

# 나. 환율

## 3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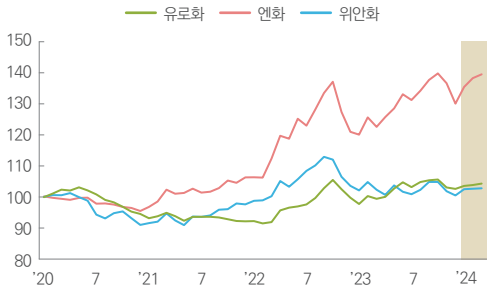
■ **3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 3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0.14%, 0.91%, 0.47% 상승
- 한편 3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2.31%, 7.31%, 1.72% 상승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6]는 3월말 기준 전월말 대비 0.32% 상승한 104.5를 기록**

- 3월말 달러인덱스는 전년말 대비로는 3.11% 상승

| 그림 24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25 |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16)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

# 다. 주가

## 3월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 모두 상승

■ **3월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불안 우려에도 불구 주요국 인공지능 등 기술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 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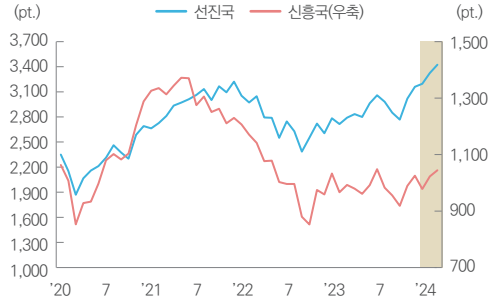
• 3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3.01%, 신흥국 주가는 2.18% 상승

■ **한편 3월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상승**

• 3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의 주가는 전월말 대비 각각 2.08%, 4.61%, 3.0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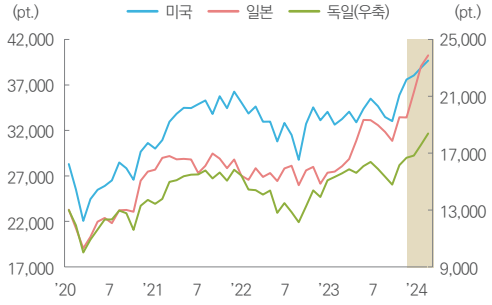
• 미국, 독일, 일본의 3월 주가는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5.62%, 10.39%, 20.63% 상승한 수준

| 그림 26 |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 그림 27 |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 라. 금융위험 지표

## 3월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는 전반적 하향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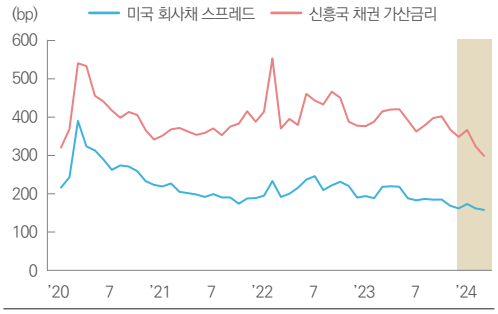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17]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18]는 미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하며 물가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하락**

• 3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전월대비 26bp 하락한 294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4bp 하락한 154bp를 기록

■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19]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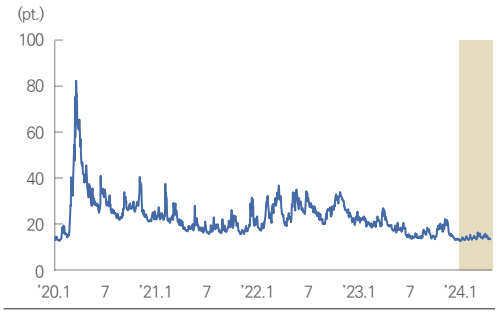
• 3월 VIX지수는 전월대비 0.19p 하락한 13.79를 기록

| 그림 28 | 글로벌 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29 | VIX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17)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18)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국의 Baa 등급 10년물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스프레드가 확대

19)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V

경제동향

# 기술경제 동향

## 반도체 기술: 위기와 기회

"기술경제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기술경제 동향

# 반도체 기술: 위기와 기회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 **황영남** 연구원

## 1 배경

###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음

■ **반도체 칩 당 반도체 소자(트랜지스터)의 수가 1천억 개에 도달하고 있으며, 반도체 집적도 증가를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를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만들어야 함**

■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는 소자 개발과 소재, 부품, 장치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자 개발: 새로운 물질, 새로운 구조, 새로운 공정
- 소재, 부품, 장치: 더 작게, 더 얇게, 더 균일하게

### 집적도 증가에 수반되는 발열이 문제임

■ **집적도 증가에 따른 발열은 온도를 증가시켜 반도체 칩의 오동작을 유발함**

- 반도체 칩의 동작 주파수를 제한하여 전력 소모, 즉 발열을 억제하고 있음
- 그러나, 동작 주파수 제한은 칩 성능도 함께 억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반도체 칩 안에 다수의 코어를 두는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음**

- 연산량이 많으면 다수의 코어를 이용, 연산량이 적으면 소수의 코어를 이용하여 발열을 억제하며 성능 향상 중임

※ 싱글 코어(Single Core): 2000년대 중반까지 동작주파수 증가로 성능 향상
※ 멀티 코어(Multi Core): 2000년대 중반 이후 코어 수를 늘려 성능 향상

## 최근 새로운 반도체 칩 연결 방법을 도입하여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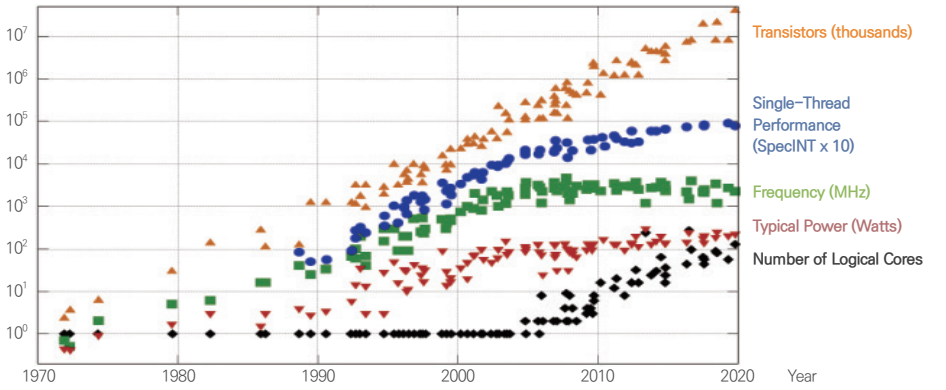
■ **반도체 칩의 연결을 기판 뿐만 아니라 패키징 단계에서 구현하여, 적은 전력 소모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게 됨**

- 패키징 단계에서는 배선을 더 가늘게, 더 많이, 더 짧게 구현할 수 있음
- 이를 실리콘 인터포저 (Silicon Interposer) 기술이라고 함

■ **GPU와 HBM 연결에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 GPU: Graphic Processing Unit, AI 연산장치
- HBM: High Bandwidth Memory, GPU의 메인 메모리,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듦

| 그림 1 | 48 Years of Microprocessor Trend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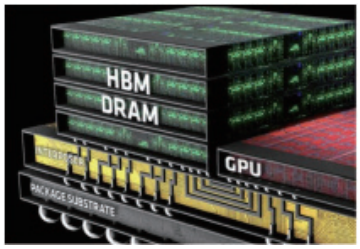



자료: https://github.com/karlrupp/microprocessor-trend-data/blob/master/48yrs/48-years-processor-trend.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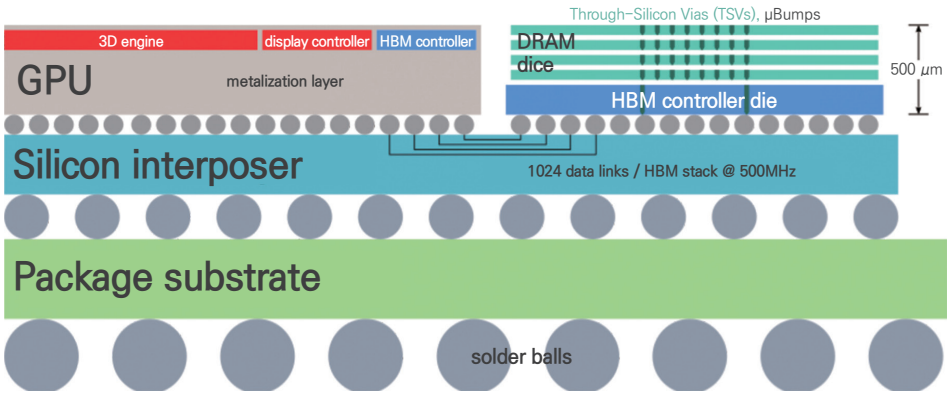
| 그림 2 | GPU와 HBM을 연결하는 Interposer 기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1]

GPU와 HBM 연결 (노란색: Interposer)[2]




실리콘 인터포저 개념도[3]




자료: 1) https://www.fudzilla.com/news/graphics/37294-pascal-uses-2-5d-hbm-memory
2) https://www.guru3d.com/review/an-introduction-to-hbm-high-bandwidth-memory/page-2/
3) https://en.wikipedia.org/wiki/High_Bandwidth_Memory

# 2 반도체 기술의 위기와 기회

## 위기: 반도체 집적도 증가에 따른 발열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 **멀티 코어, 실리콘 인터포저 외 Domain Specific Architecture[1]에서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응용 범위가 좁음**

- 범용 연산 방식(General-Purpose computing)은 반도체 칩에 다양한 연산 회로를 구현해야 하므로 설계 최적화가 어려워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을 높이기 어려움
- 특수 연산 방식(Special-Purpose computing)은 특정한 분야에 최적화된 아키텍처(Domain Specific Architecture)를 구현할 수 있어 전력 소모 대비 성능 향상이 비교적 쉽지만,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응용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음

## 기회 1: AI 등장으로 특수 연산 방식이지만 응용 범위가 넓은 AI 가속기 출현

■ **AI 알고리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연산의 특징**

- 덧셈, 곱셈 등 단순한 연산이 대부분임
- 서로 독립적인 연산이 많아 대부분 동시 처리가 가능함

■ **AI 가속기는 코어를 단순하게 많이 만들어서 동시에 처리하는 반도체 칩**

- 현재는 GPU(Grapgic Processing Unit)가 AI 가속기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한층 더 AI 연산에 최적화된 NPU(Neural Processing Unit)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음

※ Google TPU, MS Maia, AWS Inferentia/Trainium, Meta MTIA, SKT Sapeon 등이 그 예임

■ **AI 알고리즘의 응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AI 가속기가 특수 연산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음**

1) CPU처럼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범용 아키텍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응용프로그램 도메인의 범위 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적화된 아키텍처

## 기회 2: AI 가속기는 새로운 메모리 요구

■ **AI 가속기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메모리는 느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동안 AI 가속기는 대기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메모리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더 빨리 더 많이 전송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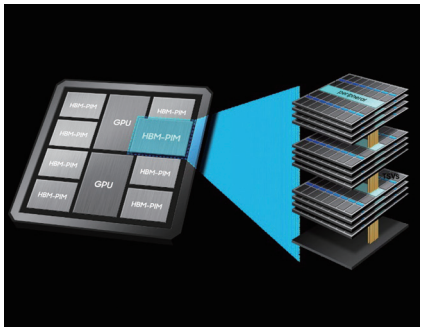
- HBM(High Bandwidth Memory)은 다수의 DRAM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고 GPU와의 연결을 패키징 단계에서 구현한 고속 고용량 메모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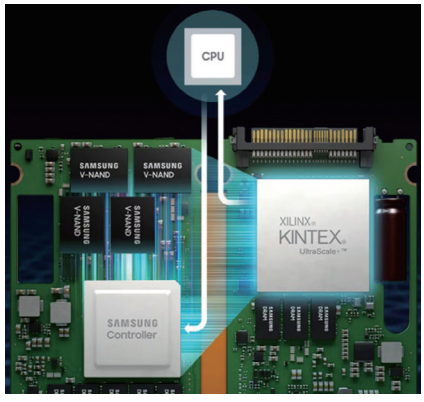
■ **아울러, AI 가속기 연산 부담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등장함**

-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계산하는 Near Memory Processing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HBM-PIM과 SmartSSD가 대표적인 사례임

| 그림 3 | HBM-PIM기술과 SmartSSD기술

| HBM-PIM[1] | SmartSSD[2] |
|---|---|
| • GPU와 HBM이 수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대신 일정 부분의 연산을 HBM에서 수행하여 결과를 주고 받는 형식<br>• HBM 내부에 AI 연산 회로를 추가함(가늘고 짙은 파란색 부분)<br>• HBM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HBM-PIM(Process-in-Memory) 라고 함 | • AI 모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용량이 매우 큰 SSD에 AI모델을 저장하고 SSD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br>• SSD 내부에 AI 연산 칩을 추가함(Xilinx사의 KINTEX 칩)<br>• SSD에서 AI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Smart SSD 라고 함 |




자료: 1) 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news-events/tech-blog/hbm-pim-cutting-edge-memory-technology-to-accelerate-next-generation-ai/
2) 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ssd/smart-ssd

# 3 새로운 기술적 대안의 모색

## 집적도 증가에 따른 발열 억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기술적 대안이 필요

- **지속적인 집적도 증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열 억제가 필요**
- **멀티 코어, 실리콘 인터포저 기술은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을 높이고 있으나 기존 연산 방식의 한계 존재**
- **근본적인 발열 억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산 방식이 필요**
- **현재의 AI는 뉴론과 시냅스 기능을 모방한 단계이며 대뇌피질의 모방에서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찾고 있음**

## 뉴런과 시냅스 기능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대뇌피질을 모방하는 단계로 대안모색

- **현재는 뉴런과 시냅스 기능을 모방한 AI 2.0의 시대이며, 향후 대뇌피질의 작동 원리를 모방한 AI 3.0의 시대로 발전할 것임**
- **대뇌피질을 모방하는 이유는 전력 소모 당 성능 향상을 위해서임**
  - 인간의 뇌는 20 와트의 전력을 소모하지만 15,000,000 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로도 대뇌피질의 작동은 모사할 수 없음
  - 대뇌피질의 작동 원리를 반도체 칩에 적용하여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을 높이려는 뉴로모픽 컴퓨터(neuromorphic computer)가 연구되고 있음

| 표 1 | AI 발전 3단계

| | AI 1.0 | AI 2.0 | AI 3.0 |
|---|---|---|---|
| 뇌 | 관심 없음 | 뉴런과 시냅스 | 대뇌피질 |
| 지능 | 행동으로 나타난 규칙 | 뉴런과 시냅스의 작용 | 대뇌피질의 작용 |
| 모방 | 행동으로 나타난 규칙을 모방 | 뉴런과 시냅스의 기능을 모방 | 대뇌피질의 작동 원리를 모방 |

## 뉴로모픽 컴퓨터 구현을 위해서는 뇌의 작동 원리 이해가 필요함

### ■ 뉴런의 특성으로부터 대뇌피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실리콘 원자는 반도체의 특성을 갖지 않지만, 실리콘이 모이면 반도체의 특성을 가짐. 현재의 반도체 공학은 실리콘 원자로부터 반도체 특성의 발현을 매우 잘 설명함
- 그러나 뉴런이 약 150억개 모인 대뇌피질에서 나타나는 인식, 학습, 추론 등의 특성이 뉴런으로부터 어떻게 발현되는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 뉴런의 수를 늘려가면서 대뇌피질의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중임

- EU는 Human Brain Project 지원

※ 맨체스터 대학은 SpiNNaker 슈퍼컴퓨터를 제작하여 인간 뇌의 1%까지 모사하고 있음(SpiNNaker: Spiking Neural Network Architecture)

- 미국에서는 Intel이 INRC(Intel Neuromorphic Research Community) 운영

※ 자체 제작한 Loihi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고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및 응용에 60개 이상의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최대 인간 뇌의 14% 수준 모사 가능

- 호주에서는 Western Sydney University 주관 Deep South 슈퍼컴퓨터 제작 중이며, 최초로 인간 뇌의 100% 모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칩 단위의 연구를 수행하는 정도로 연구가 미미함

### ■ 뇌의 작동 원리 연구의 중간 결과를 활용한 제품이 나타나고 있음

- 뉴런의 수를 늘리며 뇌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려는 노력 속에 중단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SpiNNcloud 사는 SpiNNaker 프로젝트에서 분사된 스타트업으로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 높은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Applied Brain Research 사는 자동차, 로봇 등 엣지 컴퓨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음

##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뉴로모픽 컴퓨터(Neuromorphic Computer)

■ **뇌의 작동 원리를 적용한 반도체 칩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 뉴런의 구현, 인공 시냅스의 구현, 인공 신경망 구조의 구현, 전력 효율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인공 뉴런: 뉴런의 수학적 모델을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로 구현하려는 연구임
- 인공 시냅스: 학습에 따라 뉴런의 연결 강도가 변화되는 시냅스를 다양한 메모리 소자를 이용하여 구현하려는 연구임
- 인공 신경망 구조: 뉴런 사이의 비정형적 연결을 구현하려는 연구임. 나노와이어 제조 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비정형연결을 이용하는 나노와이어 신경망(Nanowire Neural Network) 이 대표적인 연구임
- 전력 효율성: 대뇌피질의 작동 원리를 적용하고, 인공 뉴런 및 인공 시냅스의 전력 소모를 실제의 뉴런 및 시냅스 수준까지 감소시키려는 연구임.

■ **반도체 소자 집적도에서 뉴런 집적도 증가로 패러다임 변화 기대**

- 현재는 기초적인 단계로서, NPU의 전력 소모 당 성능을 뛰어 넘기 위해 메모리 소자를 시냅스로 이용하여 인공 신경망 연산을 수행하는 Analog MAC(Multiply-Accumulate) 또는 In-Memory Computing 기술이 많이 제안되고 있음
- 향후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 증가에서 뉴런의 집적도 증가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발열을 억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VI

경제동향

# 경제 현안

## 우리나라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경제 현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I

경제 현안

# 우리나라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김경수** 분석관(02-6788-4670)

## 1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우리나라의 2021년 전체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8.2만달러(PPP적용)로 OECD 38개 회원국 중에 22위 수준**
- **주요 산업 중 특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았음**
-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상위권 수준, 서비스업은 하위권 수준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1]은 13.83만달러(PPP적용)로서 비교가능한 OECD 36개 국가들 중 6위로 상위권 수준[2]**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57만달러(PPP적용)로서 비교가능한 OECD 36개 국가들 중 27위로 하위권 수준**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으로 인해 전체산업 노동생산성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 GDP 대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2021년 기준 62.4%)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산업 노동생산성 수준도 낮게 평가됨

1)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실질GDP를 총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된 것으로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을 측정함. 주로 산업과 국가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함

2) 시장환율 적용할 시 순위는 13위

■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평균과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그 격차도 큼**

- OECD 평균(=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6.57만달러)은 75.8수준
- 미국(148.2), 일본(83.1), 독일(87.8), 영국(86.2), 이탈리아(94.3), 캐나다(90.6)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표 1 | OECD 주요국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현황 및 순위(2021년 기준)

(단위: PPP적용 US만$)

| | | 아일랜드 | 미국 | 독일 | 영국 | 일본 | 한국 |
|---|---|---|---|---|---|---|---|
| 제조업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 71.65 | 15.97 | 10.97 | 12.44 | 10.9 | 13.83 |
| | 순위(36개국 중) | 1 | 4 | 13 | 10 | 14 | 6 |
| 서비스업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 13.94 | 12.84 | 7.61 | 7.46 | 7.19 | 6.57 |
| | 순위(36개국 중) | 2 | 3 | 16 | 18 | 21 | 27 |
| 전산업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 21.25 | 13.3 | 9.15 | 8.86 | 7.65 | 8.2 |
| | 순위(38개국 중) | 1 | 3 | 16 | 20 | 24 | 22 |

자료: OECD, 한국생산성본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비스업 중 유통·운수·음식·숙박, 정보통신, 기타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특히 취약

■ **OECD 평균 수준 대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금융보험(96.9), 전문과학관리지원(81.9)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반면, 유통·운수·음식·숙박(65.2), 정보통신(64.5) 등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

- 정보통신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출판·방송·우편·통신, 정보서비스업 등이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생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생산 관련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 대비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

| 표 2 | 주요국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OECD 평균 대비 수준(2021년)

(단위: OECD 평균=100)

| | 유통운수 음식숙박 | 정보통신 | 금융보험 | 전문과학 관리지원 | 기타서비스 | 서비스업 전체 |
|---|---|---|---|---|---|---|
| OECD 평균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한국 | 65.2 | 64.5 | 96.9 | 81.9 | 72.7 | 75.8 |
| 미국 | 136.9 | 148.7 | 112.8 | 193.9 | 148.1 | 148.2 |
| 일본 | 90.4 | 70.1 | 82.8 | 63.2 | 90.6 | 83.1 |
| 독일 | 100.3 | 77.2 | 77.8 | 79.8 | 123.5 | 87.8 |
| 영국 | 75.9 | 87.5 | 117.5 | 67.2 | 119.3 | 86.2 |
| 이탈리아 | 113.3 | 68.7 | 99.2 | 74.5 | 73.9 | 94.3 |
| 캐나다 | 94.8 | 56.5 | 70.7 | 66.8 | 85.7 | 90.6 |

자료: OECD, 한국생산성본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첫째,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늘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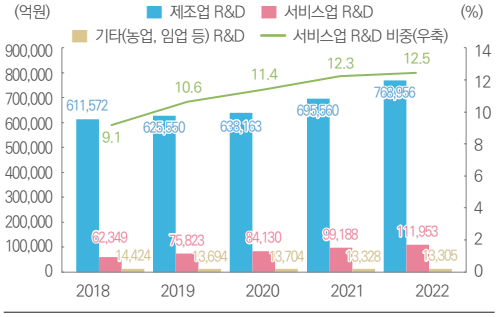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기업의 민간부문 전체 R&D 투자액 중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는 76조 8,956억원으로 전체의 86.0%이지만, 서비스업 부문은 11조 1,953억원으로 전체의 12.5% 수준에 불과**

- 민간부문 R&D 중 제조업 비중: 2018년 88.8%, 2020년 86.7%, 2022년 86.0%
- 민간부문 R&D 중 서비스업 부문 비중: 2018년 9.1%, 2020년 11.4%, 2022년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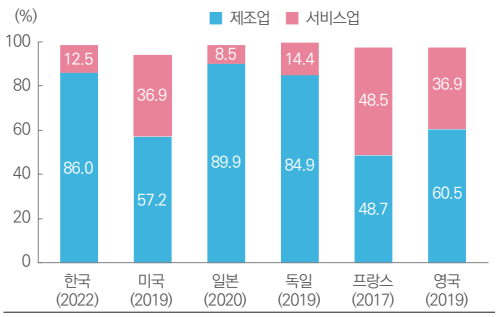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R&D 중 서비스업 부문 비중은 미국,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낮고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미국(2019년 36.9%), 프랑스(2017년 48.2%), 영국(2019년 60.5%), 일본(2020년 8.5%) 등

| 그림 1 | 업종별 우리나라 민간부문 R&D 투자규모




| 그림 2 | 주요국 업종별 R&D 투자규모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안)」

## 둘째, 저생산성 서비스업 부분으로 유입되는 고용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투자 확대 필요

■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고용과 창업이 증가**

-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는 공장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 왔음
-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이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으로 이전되고 해당 분야의 영세자영업 창업과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력은 유통·음식·숙박 등의 업종에 다수 포진하고 있고 해당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22~2023년까지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서비스업 업종 중의 하나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음
- 2023년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32.7만명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4.3만명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4만명이 증가

■ **송상윤·안재빈·김하은(2022)[3]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으로 재취업한 근로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의 증가를 들고 있음**

- 실직 상태에 있거나 창업 등으로 서비스업에 재취업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서비스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40.0%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직업훈련 등 교육관련 정부예산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학습기회를 늘려 근로자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할 필요**

3) 송상윤·안재빈·김하은(2022),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분석: 산업간 이동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2-1호.

# 3 시사점

##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서비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22년 63.5%, 취업자수 기준으로 2022년 70.7%로 상당한 수준임**
- **2021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57만달러(PPP적용)로서 비교가능한 OECD 36개 국가들 중 27위로 하위권 수준**
- **2020~2023년 동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평균 2.54% 증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평균 1.25% 증가에 불과**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교육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서비스업 민간 R&D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반면 기술개발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업 R&D투자는 미흡한 실정
- **저생산성 서비스업 부분으로 유입되는 고용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투자 확대 필요**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해 상당 규모의 R&D투자가 필요하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민간부문 전체 R&D 투자액 중 서비스업 부문은 12.5%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력은 유통·음식·숙박 등의 업종에 다수 포진하고 있고 해당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32.7만명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4.3만명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4만명이 증가

## [BOX 2]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현황

### 취업자수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2023년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순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4.3만명 증가한 285.8만명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1.4만명 증가한 230.0만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7만명 증가한 135.7만명
- 정보통신업은 전년대비 5.7만명 증가한 103.7만명

연도별, 업종별 취업자수 및 증감 현황

(단위: 천명, 전년대비 %)

| | 2021 | | 2022 | | 2023 | | |
|---|---|---|---|---|---|---|---|
| | 취업자수 | 증감 | 취업자수 | 증감 | 취업자수 | 증감 | 증감률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534 | 198 | 2,714 | 180 | 2,858 | 143 | 5.3 |
| 숙박 및 음식점업 | 2,098 | -47 | 2,182 | 84 | 2,296 | 114 | 5.2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219 | 55 | 1,288 | 69 | 1,357 | 70 | 5.4 |
| 정보통신업 | 901 | 54 | 981 | 80 | 1,037 | 57 | 5.8 |
|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467 | -29 | 482 | 15 | 512 | 30 | 6.2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143 | 31 | 1,213 | 71 | 1,238 | 25 | 2.0 |
|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1,135 | -55 | 1,119 | -16 | 1,130 | 11 | 0.9 |
| 금융 및 보험업 | 800 | 22 | 774 | -26 | 782 | 9 | 1.1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등 | 1,397 | 50 | 1,423 | 27 | 1,431 | 8 | 0.6 |
| 기타 | 354 | 0 | 340 | -14 | 338 | -2 | -0.6 |
| 교육 서비스업 | 1,840 | 42 | 1,902 | 62 | 1,896 | -6 | -0.3 |
| 건설업 | 2,090 | 74 | 2,123 | 33 | 2,114 | -9 | -0.4 |
| 운수 및 창고업 | 1,586 | 103 | 1,655 | 69 | 1,644 | -11 | -0.7 |
| 농림어업 | 1,458 | 13 | 1,526 | 67 | 1,513 | -13 | -0.8 |
| 부동산업 | 531 | 14 | 552 | 21 | 534 | -18 | -3.3 |
| 도매 및 소매업 | 3,353 | -150 | 3,313 | -41 | 3,276 | -37 | -1.1 |
| 제조업 | 4,368 | -8 | 4,503 | 135 | 4,461 | -43 | -0.9 |
| 합계 | 27,273 | 369 | 28,089 | 816 | 28,416 | 327 | 1.2 |

주: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NABO Economic Trends
# 경제동향

**2024년 4월호** 통권 제42호

발행일 2024년 4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 | |
|---|---|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5-002038-07 |
| ISSN | 2950-922X |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